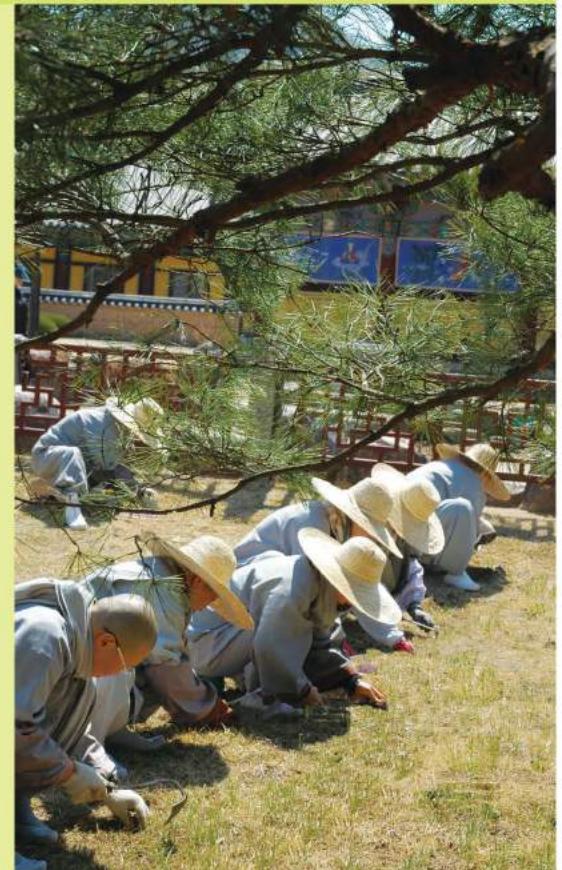


표지사진 / 꽃은 스스로 봄바람에 웃고 있네
(죽림현에 편 영춘화)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월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2-8834 / 종무소 (054) 372-8800
E-mail : unmoon@cho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봄호·통권 제96호·2006년 4월 14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일진 / 편집·운문승가대학 문희부
편집장·법안 / 편집위원·경석, 우연, 효은, 청현, 금륜, 원재, 성득, 무아 / 사진·윤호
컴퓨터·법중 / 편집디자인·玄 미디어 (02)2285-3366





불기 2555년
음력
우수승
하이가대학
통권 제 96호

雲門



불 11 2550년 봄호 통권 제96호

雲門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탄생 전의 이 얼굴이 편집부
죽림현	3	자연의 봄, 인생의 봄 명성스님
교수논단	4	중국에서의 반야사상의 수용과 이해 Ⅲ 명법스님
차례법문	6	음식에도 道가 있습니다 담현스님
학인논단	10	神衆壇에 般若心經을 드송하게 된 由來 혜륜스님
후박향기	12	지금 몇 시예요? 원정스님
특별기고 I	16	한평생 산다는 것은 지홍스님
想	18	花樂逸 자성스님
깨달음으로 가는 길	22	초연하여 기다림이 끊어진 것 편집부
선사이야기	23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 원재스님
이 한권의 책	24	깊이에의 강요 수오스님
대만불교를 보고	26	살아 있는 부처님의 자비 壹珍스님
특별기고 II	28	황금빛 수선화 일곱 송이 임의진
신베탑방	30	간절히 애쓰고 애써라 진욱스님
담소	34	봄 날 이혜경
『조당집』의 隱者들	36	천지산천의 목소리 - 동산 양개 지성스님
끝없는 여정	38	푸르게 깨어 있는 저 소나무처럼 동진스님
공간	40	바로보기 혜가스님
방부소감	44	거북이의 과세 효중스님
수행의 두레박	45	죽음 너머의 삶 선주스님
운문논평	46	휴식의 기술 편집부
운문소식	48	
등불	50	
	51	動과 靜이 하나의 균원이라 이종상

| 등 불 |

動과 靜이 하나의 근원이라



esprit - Dok Do 1 / 1987 / 89.5 × 89.5

가고 올이 끝이 없으나
動과 靜은 하나의 根源이라
衆妙를 머금고도 남음이 있으며
言思를 초월하여 멀리 벗어나는 것은
오직 法界뿐이라

注渡無際나 動靜一源이라
舍衆妙而有餘하며
超言思而迥出하는
其唯法界歟인자



이 그 오본 바 이차 탄
느러 염성 로 세감 생
느러 으로 되은 이 것 온 갖 것이
무생 가를 뿌르 네 지언 않제 으나 리
영취 집집 중에서

효정 이명우

| 죽림현 |



자연의 봄, 인생의 봄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고요했던 겨울 산중에 연홍빛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아무것도 살려내지 않을 것 같았던 맨 땅의 밭이랑이 잘 손질되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중을 려고 있었지요. 잘 다듬어진 감자를 보드라운 흙속에 묻는 학인 스님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문득 아함경전의 한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청정 교단의 평화로운 유지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순수한 수행과 포교 전법에 대한 상황들이 잘 설해져 있는 아함경에서 부처님의 농사짓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밭을 간다.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 지혜는 내가 밭 가는 보습,
나는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나날이 악한 업을 제어하나니
그것은 내가 밭에서 김 매는 것.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니
가고 돌아섬이 없고, 행하여 슬퍼함이 없이 나를 평안한 경지로 나르도다.
나는 이렇게 밭 갈고 이렇게 씨 뿌려 감로의 열매를 거두노라.”

산중의 이른 새벽은 아직도 쌀쌀합니다. 그래도 우주 생명의 질서는 분명하고 아주 진실하여 어김 없이 봄은 왔고, 초록빛 물감이 장군평 뜨락의 작은 쪽에서부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兀然無事坐 호 되 春來草自青 이로다(올연히 일이 없이 앉았으되 봄이 오면 풀이 스스로 푸르러진다)”는 선가귀감의 말이 떠오릅니다.

지난 해 가을 이후 감추었던 제 빛깔들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술년 새 봄을 또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운문의 도량에는 새로이 운문의 생활에 적응하며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새로 入榜한 치문반 스님들도 호거산 봄의 한 조화이며 질서입니다.

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去來가 따로 없는 이 우주 법계에 여전히 계절은 바뀌고, 오고 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 내 속에서도 봄은 새롭게 움 트고 있어야 합니다. “衆生心中에 諸佛이 新新作佛하고 諸佛心內의 衆生이 念念證眞”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날의 좋지 않았던 벼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 길들여진 業을 바르게 하여 善業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나의 業과 번뇌가 다 사라지는 순간 그때가 진정 새 봄을 움티우는 것이며, 해탈하는 것입니다. 我執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모든 번뇌와 집착의 業이 사라진 결과 얻게 되는 법계는 자유와 적멸입니다. ‘나’라고 하는 집착, 다르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새 봄의 생명은 늘 깨어 있어 투명한 자기 성찰이 있을 때만이 피어날 수 있는 신비한 힘입니다. 그래서 신심의 씨앗, 지혜의 보습, 三毒제거의 김 매기, 정진의 소몰이 그리고 거두어 들이는 감로의 열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짹을 퇴워, 어떤 의미의 봄을 맞이 하시렵니까? ♡

중국에서의 반야사상의 수용과 이해 Ⅲ

명법 / 운문승가대학 증강

목 차

1. 魏晋 玄學의 문제의식
2. 魏晋 玄學의 有無논쟁
3. 格義불교 시대의 반야에 대한 이해
 - 1) 格義불교
 - 2) 六家의 반야학
 - ① 心無宗
 - ② 卽色宗
 - ③ 本無宗
4. 승조의 반야사상의 의미

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야에 대한 이해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4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중국인들은 이 방법에 의해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六家의 학설이다.

陳의 혜달이 쓴 「肇論序」에 따르면 六家七宗은 本無宗 · 本無異宗 · 卽色宗 · 識含宗 · 幻化宗 · 心無宗 · 緣會宗이다. 이 가운데 本無宗과 本無異宗을 하나로 보면 六家가 된다. 「肇論」에서는 주로 심무종, 즉색종, 본무종 세 가지만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들이 당시 반야 해석의 異說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① 心無宗

『世說新語』 「가흘편」 주에서는 無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無義란 種智의 體는 넓기가 太虛와 같으며 虛이므로 능히 알고 無이므로 능히 應한다. 宗에 머무르면서 極에 이르는 것은 오직 無 뿐이다.¹⁾

이에 의하면 一切智의 體는 虛無가 되는데 一切智의 體가 바로 마음이므로 마음이 허무가 되는 것이 心無의 뜻이다. 이에 대한 승조의 비판은 『조론』 「부진공론」에 나타나 있다.

心無란 만물에 대해 無心이지만 만물은 결코 無가 아니다.²⁾

만물에 대해 無心이라는 것은 마음에 만물이 없는 것, 즉 마음에 제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空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마음이 空하다고 해서 만물까지 空한 것은 아니다. 만물은 결코 無가 아니며 만물의 경지는 不空이다. 심무종은 마음을 無로, 만물을 有로 본다. 그러므로 無가 주관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지 현상 자체를 無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야에 대한 주관의 축면만 말한 것이며 현학의 무심으로 반야를 이해한 것이다.

축법온은 현상적 존재를 허망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것을 空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그것은 무의미하며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허망하다.

경에서 모든 존재가 空하다고 한 것은, 마음의 體로

1) 『世說新語』 「가흘편」 027. 2) 『肇論』 (大正45. 152上).

하여금 허망한 것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無라고 말하였을 따름이지 대상 자체가 空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현상적 존재들은 空하지 않다.³⁾

축법온은 空을 현상에 대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무집착의 상태라고 해석하여 心無義를 세웠는데, 배위의 승유론과 과상의 무심론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배위는 왕필의 귀무론을 반대하며 본체를 따로 상정하지 않고 현상적 존재를 그대로 긍정하였다. “유는 참된 존재이고 색은 참된 색이다”라는 축법온의 설명에는 배위와 동일한 존재론적 관점이 있다. 그러나 배위가 현상적 존재를 주관적으로 긍정하는 반면 축법온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 점에서 그는 성인의 경지를 무심으로 파악한 과상의 입장은 받아들였다.

이 이론에 대한 승조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이는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점에서 얻는 바가 있으나 사물이 空함을 알지 못한다.” 즉 주관적 지혜의 공적함을 바로 알았으나 만물이 自性空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배위의 승유론이나 과상의 득화론과 마찬가지로 심무종은 無를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할 뿐, 사태 자체의 원리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주관주의에 빠졌다. 이 이론을 주장한 논자들은 지민도, 축법온, 등항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결점은 심무종이 현학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현학의 개념을 통해 반야를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반야학의 현학화에 머물고 말았다.

② 即色宗

이 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지둔이다. 『세설신어』에 따르면 그는 『장자』의 학설에 정통하여 그의 「소요유」는 상수나 과상보다 뛰어났다고 한다.⁴⁾ 그는 「即色幽玄論」과 「釋即色本無義」를 저술하여 즉색설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해지나 불행히도 이 글이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조론』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

即色이란 색은 스스로 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색이라 하더라도 색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무릇 색이라고 하면 마땅히 색은 색 자체여야 한다. 어째서 색이 색으로 인식된 후에 색이 되겠는가? 이 설은 오직 색이 그 스스로 색이 아니라고 말할 뿐 아직 색이 非色임을 알지 못한다.⁵⁾

인식론에서 말하는 만물은 만물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색이 있다고 인식하여도 객관적으로 그런 색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即色本空이라고 한다. 『세설신어』주에 인용된 지도림의 「묘관장」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다.

색의 본성은 스스로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색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색이라 고 해도 공인 것이다. 따라서 색은 바로 공이지만 색은 또한 공과 다르다.⁶⁾

이 이론은 인식 대상인 실재로서의 색과 인식된 관념으로서의 색을 분리하여 인식 대상인 실재와 관념이 다르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즉 인식 대상인 색은 名相으로서의 색이기 때문에 색이 그 자신을 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자체는 색이 아니다. 색이 아닌 것은 공이다. 그러므로 인식된 색을 非色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색과 공은 한 가지이다. 이른바 色復異空이란 본래 대로 돌아켜 색이 공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식 대상으로서의 색은 非色, 假象, 空이며 공 외에 색이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승조의 即色宗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색이 그 스스로 색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비록 색이라고 하더라도 비색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색이 색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만 말했을 뿐 색의 본성이 非色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名相의 색에 대해 색이 그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던 점, 즉 개념이 실재가 아니라고 파악한 것은 옳지만, 색 자체가 바로 假有의 성질 때문에 실재가 아닌 것, 즉 非色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

3) 『중국불교학강의』, pp.86~87.

4) 과상의 『莊子注』 「소요편」에 대한 해석보다 지도림의 해석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야경의 번역자이며 六家이론의 주요 논사 중 한 사람인 지도림의 해석이 『莊子』의 원의를 더 잘 이해했다는 사실은 노장사상의 이해에 반야사상이 끼친 영향을 보여준다. 과상은 각자 본성에 합당한 것을 소요라고 한 반면, 지도림은 소요를 至人の 경계라고 규정하여 知足의 경지에 이르려야만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世說新語』 문학편 4.032(0213), p.299 참조.

5) 『肇論』(大正45. 152上). 6) 『世說新語』 035(0216).

다. 다시 말해 卽色宗은 色空을 非有의 일면으로만 이해했을 뿐 非無의 일면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또 그는 “마땅히 색은 색 자체여야 한다. 어째서 색으로 인식된 후에 색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색 자체가 바로 색이라면 우리의 인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사물의 차이는 사물 자체가 만들어 낸 것이지 개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실재)과 비색(명상, 즉 개념)이 같지 않으며, 색 그 자체(실재)와 비색(현상)도 서로 다르다. 그것들은 자신의 형상이 있으므로 그 형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밖에 형상을 찾아 어떤 사물에 부가하여 색이라는 명칭을 다시 부여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른바 색즉시공이란 바로 색 자체가 공임을 가리키는 것이지 색즉비색의 입장에서 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승조는 즉색종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하나는 색을 개념화의 결과로 간주해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공성을 이해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색, 색공이 바로 假有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假有가 없다면 이른바 공도 없다. 제법이 연기라면 假有일 것이고 동시에 공이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다.

지도림은 인식론만으로 공성을 논증했기 때문에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문이다. 인도 인식론은 협랑(직관)과 비랑(추론)에 대한 고찰과 가설(개념)과 離言에 대한 고찰이 있지만 이것들은 중국인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불교인식론은 논리학의 自相(개별자)과 共相(보편자)을 함께 결합시킨 것이다. 지둔이 말하는 색은 共相의 인식이다. 곧 색상과 구별이 없는 공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색의 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을 사용해 나타낸 것은 모두 공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상은 연기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념적으로 본다면 공상이고 연기적으로 본다면 자상이다. 연기법의 구성 부분은 각각 다르지만 개념을 떠나 있으므로 공허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개념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공이 색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른바 지도림의 當色名色이란 바로 공상을 말한 것이다. 승조는 자상의 입장에서 그것의 일면성을 비판했으며 설사 연기법이 개념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유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도림의 즉색설은 인식과 실재를 구별한 점에서는 진보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재 자체를 연기로써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반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었다. 이 한계는 구마라집에 의해 중관학설이 알려짐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구마라집은 반야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分別, 相, 名 등 五法을 언급하였다. 분별은 주관인 能의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며 相, 名은 객관인 所의 측면을 가리키기 때문에 空性을 말하기 위해서 名만 아니라 相도 말해야 한다. 가명도 공이고 연기도 공이므로 『中論』에서는 空, 假를 함께 말하고 있다. 즉 비유와 비무를 관계시킨 것이다. 지도림의 한계는 相과 名을 통일하여 공성을 이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유와 비무를 통일하여 공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③ 本無宗

本無는 真如를 번역한 용어로 性空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반야의 性空을 말할 경우 本無까지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본무종의 본무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현학은 이미 貴無와 崇有에서 獨化說로 발전하였고 불교의 本無와 獨化설이 결합되어 자연을 本無로 이해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本無와 다르다.

本無宗의 대표적인 학자는 축법태이다. 『中論疏記』에는 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제법은 본래 부터 無이며 확 터져 있어 형체가 없으므로 第一義諦이다. 그로부터 생겨난 만물을 世諦라고 이름한다.⁷⁾

축법태의 설명은 만물이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물 그 자체가 원래부터 무이기 때문에 性空이며 제일의 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만물은 世諦에 속하게 된다.

이 논의를 유무로 표현하면 비유, 비무가 합쳐진 것 이지만 반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위를 근본으로 한다는 점, 즉 무를 근본으로 하는 비유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길장은 도안의 性空說을 본무설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7) 『중국불교학강의』 p.91 제인용.

집법사가 장안에 오기 전에 본래 3가지 이론이 있었다. 첫째 석도안이 본무이론을 밝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는 만물의 조화 이전에 존재하고 공은 모든 형체의 시원이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바는 그 집착이 지엽적인 것에 있는데 만약 마음을 본무에 둔다면 번뇌를 쉴 수 있다.” …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석도안이 밝힌 본무란 일체 존재가 본성이 공적하기 때문에 본무라고 하였다. 이는 방등경의 논의나 구마리집과 승조 문학의 이론과 다르지 않다.⁸⁾

도안의 반야학은 상당히 실증적인 것이었다. 그는 『도행반야경』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방광반야경』으로 『도행반야경』을 해석하고 양자를 비교 연구하였다. 도안이 주장한 본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머무를 것이 없음을 처음으로 삼고 얻을 것 없음을 마지막으로 삼았으며 가명으로 그 진실한 모습을 비추고 응분의 수행을 가지고 그 지혜를 드러낸다.’⁹⁾

머무는 바 없는 데에서 가명이 시작되어 자성을 얻을 것이 없는 경지에서 끝을 맷게 되며 명언을 벌려 진실을 이해하고 수행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도처에서 반야를 구하게 된다. 이것은 가명의 존재, 심지어 모든 행위의 작용도 실제 상황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연기의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으며, 아직 空, 假, 中三諦의 표현은 없으나 반야의 의미가 자성공의 입장에서 파악되고 있다.

승조의 『조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축법태의 본무설이다.

本無란 마음으로 무를 승상하여 말로 나타냄으로써 곧바로 무를 따룬다. 그러므로 비유란 유가 없는 것이고 비무란 무 또한 없는 것이다.¹⁰⁾

마음으로 무를 승상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 곧 무로 향한다. 경전에서는 비유, 비무를 해석하여 비유는 유를 배척하여 유가 없는 것이고 비무는 무와 하나가 되어 무가 된다고 하므로 非有나 非無가 다 함께 무로 돌아가는 것이 본무설이다. 즉색종은 색을 공이라

고 파악했으며 심무종은 마음을 공이라고 간주했고 본무종은 비유, 비무를 언급했으나 여전히 무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설명은 모두 무를 풀이하는 것이므로 비유도 무일 뿐 아니라 비무도 무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진무, 진유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진이라고 말하면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유, 가무를 없앨 수 없다. 승조는 “이는 오직 무에 관한 담론을 좋아한 것인데 어찌 사실과 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물의 실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此直好無之談 豈謂順通事實 卽物之情哉)”라고 비판하였다. 順通이란 사물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것으로써 주관의 고집에 의거해 사물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卽은 ‘~와 같이’라는 의미이며 情은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물 자체의 변화하는 상황이다. 진정으로 사물의 실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일반적인 지혜로 도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반야로 性空을 이해해야 한다. 본무설도 비록 진유, 진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했으나 가유, 가무의 이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무에 편중되어 있다.

육가의 중요한 특징은 사상을 자유롭게 개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현학의 개념으로 공을 이해했기 때문에 현학과 동일한 한계를 보여준다. 자기 이해에 한정된 자유로운 경전 해석이 한계를 노정하였을 때 경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도안은 격의불교의 자의성에 반대하면서 경전의 원의에 더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사행을 비롯한 많은 승려들이 서역을 향해 구법여행을 떠났으며, 서역에서 들어오는 역경승들을 열렬하게 맞이하였다. 격의불교가 차츰 배제된 것은 도안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격의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구마리집의 역경 이후이다. 구마리집에 의해 『중론』 등의 논서가 번역됨으로써 반야사상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었으며 현학의 한계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8) 『中觀論疏』(대장42. 29上). 9) 『중국불교학강의』, p.96 채인용. 10) 『華論』(대장45. 152上).



대중스님 건강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수행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우리의 음식 습관을 들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먹지 않으면 몸을 유지하기 어렵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 음식!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삼시 세 때 먹는 일은 인륜지대사입니다. '수행 잘 하려면 이 몸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 자연히 좋다는 음식에 귀 기울여지고 좋다는 약을 찾고, '가리는 음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스님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관념, 그래서 늘상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약도 좋은 음식도 욕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된다 하였습니다.

『금강경오가해』에서는 음식이 성품을 이룬다 하였고, 『능엄경』의 약상, 약왕보살이 부처님과 나누는 대화에서는 "저희들은 의사가 되어 이 사바세계의 음식을 맛본 종류가 십만필천 가지인데, 그 맛이 쓰고, 시고, 짜고, 담백하고, 달고, 매운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맛들이 어떻게 어울리고 생겨나며 변화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냉각하고 가열할 때 어떻게 변하며, 그리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저의 본래 성품을 탐구하다 보니 맛의 참모습이 空도 아니고, 有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몸과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맛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 제 본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음식의 맛으로 인해서 깨닫고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 일은 수행입니다.

어느 식품학자는 골고루 먹고, 때맞춰 먹고, 양껏 먹는 것이 최상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골고루 먹기.** 싫은 음식이 있다는 것은 성격과 의식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므로, 자연 마음이 장에되어 막힘이 있으니 수행에 방해됨은 당연지사입니다. 몸과 마음에 좋은 것을 같이 먹는 것, 그것이 골고루 먹는 일입니다.

→) **때맞춰 먹기.** 여기서 때에 맞춘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배가 고풀 때입니다. 에너지가 충전을

원하는 때에 적당히 먹어 허기를 해소하면 면취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장기인데도 만족할 때를 모르고 입이 원하는 대로 계속 들어가니 그 때의 위는 내 몸의 것이 아닌가 봅니다.

三) 양껏 먹기. 그런데 그 양껏 먹는다는 기준, 바로 그 기준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위는 음식이 70~80%정도 차 있을 때가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위가 100% 찼는데도 머릿속에는 부족해 먹고 또 먹습니다. 결국 비만을 초래하죠. 이처럼 양껏 먹는다는 것은 설계되어진 위의 크기에 맞도록 먹는 것입니다. 양껏 먹기가 맘껏 먹기로 둘 변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들의 대장, 직장에는 수백 조의 세균들이 사람의 힘으로 분해하지 못한 음식을 잘게 분해해 모자란 영양을 보충하도록 해 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니 그 세균들마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질 못해 그 결과 분해가 덜 된 음식들은 장 속에 남아 각종 해를 끼치며, 혈액 또한 깨끗이 순환되지 못하니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 혈이 막히고 몸에 氣가 제대로 들지 않으니 자연 건강지수는 마이너스를 향해 달립니다. 또 위는 최선을 다해 소화시키기 위해 애쓰다 보니 자연 睡魔를 부르고, 더 나아가 청정치 못한 향기까지 발산하여 주위 대중을 뇌롭히니 '음식, 대체 이 뭐고'입니다.

양껏 먹는다는 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小食을 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른다면 건강한 수행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대부분의 큰스님들께서는 小食을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一麻隻麥이라하여 한 조각의 꾀마자와 한 조각의 보리알만 드시고 공부하셨습니다.

골고루, 때맞춰, 양껏 먹기 외에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수저로 집을 수 없는 음식.'

입으로 굳이 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

한량없이 먹어도 불편함이 없는 음식.'

대중스님께서는 이런 음식을 드셔 보셨습니까? 그것은 미각과 촉각이 아닌 '마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이라는 음식에 해당됩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먹는 밥과 골이 잔뜩 난 기분으로 먹는 밥은 영양가가 다릅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그 먹은 에너지로 선행하기를 발원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불로장생약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9억의 생명이 들어 있고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음식만 해도 농부의 고된 노동과 대지와 생물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먹거리들을 시주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정성스레 공양한 시주물, 대중 스님들의 땀방울과 정성, 건강을 생각한 맛내기, 조왕님께 대중 스님들의 건강을 발원하는 후원 소임자들의 마음 등이 들어 있으니 반찬 한 가지는 그냥 반찬 한 가지가 아니며, 밥 한 수저는 그냥 밥 한 수저가 아니며, 그 음식을 섭취한 이 몸 또한 혼자만의 몸이 아님을 우리는 자각하고 또 자각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만족해 하며 적당히 먹으면 그 음식은 굳이 영양 분석을 따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 줄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수행하는데 회향한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구현인 것입니다.

대중스님! 좋은 음식으로 이 몸을 채우려기보다 주위 사람들의 자비심의 기운을 먹고, 스스로의 信心, 下心의 기운을 먹고, 무슨 일이든 애쓰는 기운을 먹고, 기도하는 도반들의 道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부처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의 기운을 먹는 수행자 되시길 발원해 봅니다.

성불하십시오. ☺

神衆壇에 般若心經을 독송하게 된 由來

혜륜 / 사집과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본론

1. 禮佛의 기원과 한국 불교
예불의 전개
2. 神衆신앙의 기원 및 전개과정
3. 중단 예불에 般若心經을
독송하게 된 由來

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아침저녁으로 상단에는 七頂禮를, 신중단에는 반야심경을, 그리고 하단에도 각단 예불을 모신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불을 모실 때마다 행자시절부터 줄곧 가져온 의문이 있었다. 그것은 왜 佛菩薩을 모신 상단과 토속 신앙과 습합된 하단에는 예경 의식을 거행하면서 신중을 모신 중단에는 예경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일까? 더구나 신중을 예경하는 예경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는 것이었다. 어른 스님들께 여쭤 보았으나 부처님 앞에서 그 시자(神衆을 말함)에게 절을 할 수 없어 공경의 뜻으로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반야심경으로 禮를 표시한다는 조금은 박연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예불의 기원과 神衆신앙의 전개 과정 및 중단 예불에 반야심경이 독송되어지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禮佛의 기원과 한국 불교 예불의 전개

禮佛이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의 예경 대상 즉 佛菩薩에게 禮를 올리는 일체의 행위 동작을 총칭한다. 초기 불교 교단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의식을 갖춘 예불이라는 별도의 의례가 없었다. 당시 비구들은 부처님과 함께 정해진 규범, 즉 계율에 따라 하루의 일과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부처님을 공경하는 예법은 있었다. 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에 대한 가장 최초의 예경은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 두 상인이 행한 頭面禮이다. 트라프사와 바루리카라는 두 상인은 미숫가루를 바리때에 담아 올리고 식사가 끝난 뒤 부처님의 발 밑에 머리를 대고 예배하며 재가신자로 귀의한다.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초의 禮敬이다. 이러한 예불의 형식은 점차 깨달은 자(佛)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法),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무리(僧)에 대한 예경으로 그 대상을 확산하게 되며, 그 결과 佛·法·僧三寶에 대한 예경 즉, 三歸儀禮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불멸 후 봉다에 대한 숭배는 불사리탑, 보리수, 佛足石, 法輪 등 봉다의 상징에 대한 예경으로 이어졌다. 이후 불교사의 전개와 더불어 교단과 교리의 발전에 따라 특히 대승불교의 흥기 및 밀교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불보살들이 불교 예경의 대상 속에 합류하였고 또한 각 지역의 토착적인 문화와 습합되고 지역 대중의 구체적인 삶의 관심사와 직접 만나며 예불의 형식과 내용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한국불교 초기의 예불 형태가 어떠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삼국 시대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예불과 관련된 단편적 기록들로부터 유추해 볼 때, 현대의 예불의례에 사용되는 분향, 헌다, 범페, 삼보에 귀의하는 형식과 發願文 등이 초기적 형태로나마 행해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예불 모습은 고려 시대의 보조국사 知訥스님이 지은『誠初心學人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불에 나아가되 모름지기 조식으로 근행하여 스스로 계으름을 꾸짖으며 …”라고 한 것을 볼 때 이미 불교 교단에서는 하루 두 번에 걸쳐 행하는 朝夕禮佛이 관행화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예불이 수행의 일파로서 계으름을 방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억불정책과 종단폐합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민간 차원에서 대중의 求福과 追善을 담당하는 檀越 의존적 교단으로 전락하며, 真言이나 陀羅尼 중심의 의례 진행이 가속화되고 예배를 올리는 형식이 화엄과 선종의 예불문, 정토사상의 예불문, 화엄과 밀교의 성격이 혼합된 예불문 등 여러 종류가 공존, 혹은 혼용의 상태로 通宗派의 성격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탈 및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불교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외래 종교들의 도전적 포교활동과 일본 불교, 특히 宗派佛教와 대면하게 되면서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불교 교육의 활성화 등을 모색하게 된다.

사실상 조선 후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정책상 불이익을 당해온 결과 無宗名, 無宗旨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던 한국 불교는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고 이를 禪의 부흥을 통해 한국 불교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예불문 또한 禪宗 중심으로 재편,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神衆신앙의 기원 및 전개과정

神衆은 석가모니불 이전부터 인도에서 신앙되었던 토속신으로서 불타의 자비심에 감동되어 불교에 귀의한 후 불법의 정통과 응호를 맹세한 聖衆으로 불교 성립 초기에는 부처님과 경전, 그리고 그 법을 설하는 법사를 보호하는 호법신의 역할을 하였다.

佛의 정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인 신중을 그린 신중탱화는 화엄경 및 여러 종류의 경전에 나오는 호법선신들, 즉 불법을 수호하고 불교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자를 외호하는 善神의 군상을 회화로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범천과 제석천 또는 동진보살을 주존으로 하여 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 또는 셋이 여러 권속과 함께 한 불화에 등장하여 신중탱화의 다양한 형태를 이룬다. 한 축에 함께 자리한 신중의 숫자에 따라 39위 신중도가 있으며, 신중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104위 신중도이다.¹⁾

보통 신중을 논할 때는 용수보살 약찬계와 80화엄의 세주묘엄품에 근거해서 39위 신중을 화엄신중으로 분류한다. 104위 신중도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善神 외에 경전에 근거하지 않은 인도 재래의 신중과 중국의 도교신, 한국의 토속신까지 함께 표현되는 등 다양한 성격의 신들을 함께 모아 한 폭의 그림에 모두 표현한 신중도이다. 이처럼 104위 신중도는 새로운 신중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불교가 고유 신

1) 1862년 해인사 대적광전 124위 신중도 예외.

앙을 불교의 카테고리 안에 광범위하게 포용하였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신중신양은 삼국 시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수용되었으리라 추측되며 고려 시대까지는 주로 불전, 탑, 부도 등 불보살이나 사리 등을 봉안하는 미술품의 外護像으로 조형한 것이 많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불법 수호의 기능이 호국의 기능으로 확대 되면서 신중은 단순한 호법신이 아닌 국가적 위기를 구원하는 막강한 무력을 지닌 神으로 인식되기 시작 하였고, 불교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면서 신중탱화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조선 시대의 신중탱화는 辟邪, 消災의 기능 을 갖고 있어 신중의 성격과 역할이 불교가 전파되어온 나라의 시대와 지역에 따라 토속신을 포섭하면서 복잡한 신양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중단 예불에 般若心經을 독송하게 된 由來

월운스님의 『일용의식수문기(日用儀式隨聞記)』에 나타난 현대 불교 예불 형식이 자리잡게 된 시점 에 주목하면, 현대 불교의례는 전통 예불의식에 비 해 禪 중심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는 한국 불교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종파 적 정체성을 禪宗에서 찾았음을 입증한다. 일본에 의해 문호가 개방된 후 한국 불교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외래 종교와의 대면, 일본 종파 불교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종래에 간행된 불교 의식 집들이 종파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 로 이 시기에 발간된 『釋門儀範』 등은 禪·敎를 구 분하는 등 한국 불교 교단의 정체성을 탐구하려고 노력하였다. 신중단 예경 의식이 般若心經 독송으로

바뀌게 된 것도 禪宗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47년 성철스님과 청담스님, 자운 스님, 월산스님 등이 경북 봉암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표어로 결사(1947년 가을 시작 ~ 1950년 봄 중단)를 맺고 선법의 중흥을 모색한 것이 한국 불교 예불의례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당시 성철 스님과 청담스님은 한국 불교의 내적 정화의 하나로 한국불교 전래의 의식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여 七星, 山神에 대한 예경 의식을 폐지하였으며, 神衆에 대한 예경을 반야심경 독송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대의 중단 예불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반야심경 독송의례는 빠른 속도로 기존의 중단 예불 을 대신하였다. 1964년 발행된 불자 지송에는 불자 들이 지송하는 천수경, 장엄염불, 아침송주(사대주) 에 나란히 반야심경을 싣고 있다. 1964년 의식용 문 헌에 반야심경은 이미 하나의 독자적 의식문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74년 발행된 범화집에서도 반야심경이 송주편 다음에 실려 있으며, 1975년 발 행된 군종(軍宗)예식에서도 반야심경이 중단 예불문 대신 실려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93년 간행된 우리 말 불교 의식집에까지 변화없이 이어져 왔으며 오늘 날 대부분 사찰의 의식에서도 중단 예불을 대신하여 반야심경 독송이 행해지고 있다.

III. 나오는 말

일반적으로 독송하고 있는 般若心經은 600권이나 되는 대반야경의 정수를 뽑아서 간략히 요약한 경전 으로 당나라 현장이 번역(649년)한 『반야바라밀다 심경』으로 총 270자 산스크리트 小本에 해당된 번역 이다. 예로부터 금강경과 함께 禪家에서 애독하는

경전이며, 세조 10년(1464년)에는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급하였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반야심경을 중요시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반야심경은 일체의 모든 것이 空하다는 것과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無' 와 '不'이라는 부정사로 일체의 차별심과 분별심, 고정관념을 떨치고 번뇌, 명념을 텅 비워 버리도록 하여 청청한 본래 불성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궁극적인 경지에서 반야심경의 眞言을 실천하는 것으로 반야의 지혜가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般若心經을 신중단에 독송하는 이유를 짐작해 본다면 첫째, 이 경전이 지난 선종파의 친화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自力修行을 목표로 하는 禪宗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였고 실제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였던 석가모니 붓나를 本尊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게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삼보를 옹호하는 화엄신중에게 불법을 들려주어 깨닫게 하겠다는 밭상의 전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수행자의 본래적 자리의 自覺이며 초기불교에서 석가모니 붓다가 보여 주었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화엄경에 화엄성중은 부처님 법과 법을 설하는 승보를 옹호하고 오직 부처님 법 설해 주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신중단에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은 불법을 옹호하는 신중에게는 최고의 공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석예불이란 예불의 시간적 제약성으로 270자로서 대반야경의 정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반야심경이 독송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단 예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월운 스님은 “중단에 수행인이 절을 하면 신장들이 減福한다는 이유로 중단예불을 봉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와 같은 凡僧이 절을 한다고 해서 신장들의 복이 과연 감해지겠는가? 도리어 교만심단 북돋는 결과가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즉 신중단에 예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중들에게 법문을 들려준다는 것이 자칫하면 법부들에게 교만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三寶라 함은 삭발염의 했다고 모두 三寶라 할 수 없고 十地菩薩²⁾ 이상 일 때부터 僧寶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十地 이상의 계위에 올라서 화엄신중에게 반야심경의 이치를 설할 수 있는 법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살계위에 있는 신중님에게 우리가 과연 반야심경의 깊은 뜻을 說할 수 있는지, 겉모습의 예배만을 짐작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송현주,「현대 한국 불교의 성격에 관한 연구」, 1999.
- 김광식,『정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성격』, 선우도량 출판부.
- 전철승,「불교 의례의 역사와 구조」.
- 「한국 신중탱화의 도상학적 연구」.
- 정병삼,『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 도서출판 풀빛, 2000.
- 정성본,『반야심경』, 한국선문화연구원, 2003.
- 불교신문, 2063호, 2004. 9. 14.

2) 여기서 말하는 十地菩薩은 화엄경 十地品에 나오는 十地菩薩을 말한다.

지금 몇 시예요?

원정 / 사교과

내가 보낸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지금은 화려한 봄을 만끽하고 있지만 …

때는 작년 가을.

치열한 소임 뽑기 열전이 시작되었다. 작업전 기도 부전 소임을 간절히 꿈꾸던 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 반 스님들의 추천으로 청풍료 작은 부전에 당첨되었다. 지대방과 큰방에서 도반스님들 “작업전 부전, 작업전 부전 노래를 하더니 진짜 작부(작은 부전)됐네!!”

작은 부전이란 큰 부전 스님을 도와 120여 명의 스님들이 사는 청풍료의 모든 것을 책임 관리하고, 특히 치문반 스님들 습의와 더불어 경책도 서슴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 스님들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 일찍 움직여야 하는 소임자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늘 수면부족에 시달린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습의를 위해 위의도 갖추어야 하는 정말, 너무나 부담스러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언 소임이었다.

사실 작업전 부전을 살기 위한 나의 노력은 정말 눈물거웠다. 소임을 위한 기도와 축원 부탁하기, 쉬는 날은 자원해서 작업전 대타 서기 등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온 말들은 기도비를 안 내서 그렇단다. 울고 싶었다.

I. 지금은 오후 2시 입선시간.

모두들 經을 열심히 읽고 있다.

‘아~ 근데 왜 이리 졸리지? 소임 부작용인가?’ 배는 부르고, 대방은 따끈하고, 따뜻한 햇살 받으니 수마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 졸리운 눈으로 애써 經을 보고 있는데,

“저~ 저~ 작은 부전스님!”

“네. 무슨 일이예요?” 치문반 스님, 웃음을 꾸욱 참으며 “잠깐 강사스님 방에 다녀오겠습니다.” 한다.

“다녀와요.” 하곤 그때까지도 영문을 전혀 모르는 난, 무슨



일인가 싶어 옆에 스님을 쳐다보았다.

그 스님도 피식 웃으며 “작은 부전 스님 피곤하긴 한가보다. 거울 좀 보시죠.”

‘아~ 이럴 수가!’ 원쪽 볼에 손바닥만 하게 붉은 도장과 포스트 일(post it : 메모지)이 붙여 있던 것이었다. 반 스님들 배꼽이 빠져라 웃는다. 정말 창피해서 울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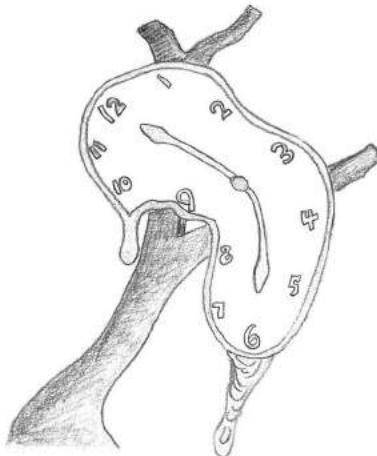
치문반에도 소문이 다 날 것이고 … 더 이상 이 소임을 위의있게 살 길이 없었다. 한 철이 끝나려면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았는데 말이다. 아! 슬프다.

Ⅱ. 작은 부전은 대중 스님들보다 항상 20분 일찍 일어나 입승 스님, 정통대장 스님, 석차례 스님, 관음 · 지장전 부전 스님들을 차례로 깨우는 일을 한다.

그 날도 난 알람을 맞추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디선가 들리는
알람소리!

벌떡 일어난 나는 소임자 스님들을 깨우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살포시 손짓을 한다. “스님, 지금 몇 시 줄 알아요? 시계 좀 봐요.” 허걱~12시 40분! 난 깜짝 놀라 입승 스님께 달려갔다. 너그러운 입승 스님, 다행히 “괜찮아요.” 하신다.

다음 날, 스님들 또 한마디씩 한다. ‘아~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Ⅲ. 그러나 며칠 후 …

삭발일.

정통대장 스님을 먼저 깨우고 난 뿌듯하게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날 아침 정통대장 스님 아주 조췌한 얼굴로 나를 노려본다. 난 혹시나 해서 “왜요 스님, 무슨 일 있어요?”

(정통대장 스님) “스님! 나 몇 시에 깨운지 알아요? 내가 이불 다 싸고 추위에 한 시간이나 떨어서 감기까지 걸렸어요~ 에~취!!! 괴롭히는 방법도 …”

“에고 … 스님 미안해요~!!”

이러한 일들 이외에도 엉뚱한 사람 깨우기, 목탁 이상하게 치기, 전달사항 잊어 버리고 얘기 안 해서 스님들 걱정 듣게 만들기 등등 이루 다 밀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지만,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오.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줄 알기에 너무 부담스러웠던 소임이지만, 대중을 위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며, 내 생에 다시 못 올 기회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듈다. 배울 것도, 느낄 것도 많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운문사가 참 좋다.

어느새 운문사에도 산들바람이 불고, 열었던 눈이 녹아 계곡을 가득 메우는 따스한 봄이 되었다. 지난 겨우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사교의 새 봄을 맞이하는 지금 내 맘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하다. 이 환희로운 마음 모두 대중에게 회향하고자 한다. ●

한평생 산다는 것은

지 흥 / 서울 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불자의 아픔과 가족의 슬픔을 살피시어 걸림 없는 위신력으로
그의 피로움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환자는 위암 때문에 위 절제수술을 잘 이겨 낸 후에는 같은 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하여 식이요법과 통증을 극복하는 등의 정보를 주고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위암 수술 이후의 4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40년과 같이 생각하며 즐겁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골수와 폐에 전이가 시작된 올해, 결국 병원에 입원하였다. 폐에 물이 생겨 물을 제거하고 나면 또 차고 해서 이젠 산소호흡기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의사 선생님은 다만 일주일이란 생존 시간만을 화두처럼 던져 주었다.

병원 법당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환자가 저 먼 극락세계로 향하기 전 병실

을 방문하였다.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에 환하게 웃던 얼굴만 떠올리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 부처님, 저 환자에게 아픔의 고통을 가져가시며 편안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봐라, 많이 아프제?”

“예, 스님. 너무 아픕니다. 인자 가고 싶어예.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로예. 스님, 극락세계는 분명 있지요?”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미타경에 보면 저 삼만 의 국토를 지난 곳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있단다. 그건 왜 묻는데?”

“인자 그만 아프고 갈립니다. 스님!”

“왜 자꾸 갈라카노?”

“스님, 남들은 수술하고 일 년 사는데 4년 살았습니다. 고맙지예. 우리 아들 의대 보내고 1년만 더 있으면 하얀 의사 가운 입는 거 보는데 … 그 때까지는 못 있겠습니다. 스님, 고마웠습니다.”

환자는 정말 이 생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버린 것 같았다. 가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 이 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환자는 자연스럽게 이 생을 정리하고 있다. 아주 침착하면서도 편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 잘 가라. 보살님은 남들 40년 좋은 일 할 것들을 지난 4년 동안 다 했다 아이가. 부처님께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왔다고 고맙다 하실 것이다. 그 아픈 몸을 끌고 다른 환자들을 보살핀다고… 부디 다음 생에는 튼튼한 몸 받아 이 생에서 못 다한 일 다음 생에 다 하소. 다음 생에는 뭐 하고 싶은교?”

“다음에는 사람으로 안 태어 날랍니다. 그냥 극락세계에 있을랍니다.”

“그래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이소. 이 생의 일일랑 다 잊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대를 연꽃 봉오리에 태우고 저 극락으로 가실 게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 잔다 생각하소. 편안하다 생각하고 그윽한 항내와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

“예, 스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틀 뒤에 환자는 아주 조용히 몸을 바꿨다.

그대가 움직이는 곳 그대로인데, 그대는 마치 다른 채널로 바꾸듯 이제는 다른 세상에 있구려. 잘 가소. 그대가 가끔 공양해 주던 커피, “시님예!” 하는 목소리가 어제 일 같은데 …

나무 아미타불. 인자 아프지 마소. 인생은 참으로 길지가 않구나.

나는 생각한다. 한평생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은 살아 숨쉬는 바로 이 순간이다.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우며, 품위 있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 배려심, 인내심, 인연의 소중함, 가족의 귀중함, 만남의 지중함, 모든 주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살아 있는 인생길이라 생

각한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와 이리 많은지, 또 하고 싶은 일도 와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살아 있다는 것이겠지, 나무 관세음 보살, 건강하고 수행정진 잘 하자며 다시 나를 일으켜 본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병원이라는 특이한 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과 소외감으로 종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갖게 된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불보살의 큰 마음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간접적인 도움이지만, 불교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병원의 불교법당에서 해야 할 수행이라 생각한다. 물론 때로는 병원 안에서 직원들의 사생활에서 생긴 문제나 직장 동료간의 여러 문제 등을 함께 의논하기도 한다.

사실 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 법당 일은 너무나 많다. 15년째 서울 아산병원의 불교법당에서 환우들과 함께 하다 보니 임상연구 위원회와 뇌사판정 위원회의 일도 같이 맡게 되었다. 한 달에 두 차례, 스물 한 명의 의료진과 함께 임상연구 논문들을 2시간 동안 심사하고 평가하는 임상연구 위원회 활동에서는 의료행위의 윤리, 도덕에 관한 부분적인 심사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e-mail로 모든 임상연구 논문을 전송받아 그 논문들을 평가, 확인, 승인하고 있다.

뇌사 판정의 경우 뇌사자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가족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곧장 뇌사판정 위원회가 소집된다. 시간을 위탁 다투는 일이라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위원회가 열리면 달려가야만 한다. 뇌사자의 모든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일을 의료진과 함께 하고 있다. 이 또한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하는 것이다. 비의료진으로서도 드문 일이고 종교인으로서는 거의 없는 역할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중하고도 책임감 있는 결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매년 1회 2시간씩 ‘의학과 종교’라는 특강을 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다음 학기부터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에게 직접 문진도 하고 상담도 하며 의료진으로서 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학생들이다. 그러한 의대생들에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 곧 냉철한 과학자인 동시에 자비심과 연민심이라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의 길을 가라고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비의료인이 참여하여 의학 분야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윤리적인 면을 재고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또한 종교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건강한 자녀들에게 큰 병이 왔을 때 부모로서의 절망감,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모시려고 했던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고 저 먼 곳으로 가실 준비를 할 때의 자괴감, 부부의 인연



으로 서로 아름답게 살다가 어느 한 쪽이 저 멀리 가는 경우 등 그 모두의 마음을 보듬고 다듬어 안아 주어야 하는 병원 법당에서의 일들은 그야말로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중요한 수행의 길이다.

그길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아홉 살에 절집과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수행해 오는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인연에 항상 감사하고, 한순간 숨 쉬고 산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되새겨 본다. 운문사와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운문사 강원을 졸업한 후 중앙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오늘까지 지난 15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 불교법당에서 수많은 인연들과 만나며 헤어지고 보내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병원 법당에서 만나는 모든 소중한 인연, 사람은 특히 사람과의 인연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多劫生來로 지은 바 모든 인연의 소치.

부모와 자식, 부부, 가까운 지인, 그 모든 인연이 언제 어느 곳에서 다시 주고받는 인연이 될지는 모른다. 예를 들어 많은 환자와 그 보호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골수 기증자, 간이식 기증자, 신장이식 기증자들처럼 장기이식에 대해서도 누구나가 쉽게 이야기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듣기도 하지만 이것 이 막상 본인의 일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운문사 학장스님(현재, 전국 비구니 회장)께서는 늘 “頭頭物物이 各得其所”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다. 모든 유정, 무정이 그 쓰임새가 정확한 곳에 놓여야 하고, 알맞게 쓰여야 한다는 말씀이다.

매일 아침 병원 법당에 들어설 때마다 느낀다. 마치 이곳이야말로 너의 수행처라고 새겨 주시는 듯한 부처님의 음성을. 인연이 주어지는 순간까지 정성을 다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고, 부처님 법을 바르게 만나게 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약사여래불의 음성을.

불교에 있어서 치료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 병 자체를 구하려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보살 정신에 의한다. 치료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사상이야말로 의학적 입장에서도 훌륭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생의 모든 병을 없애겠다는 것을 大願으로 하는 약사여래 사상이야말로 불교의 의료 정신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늘도 부처님 법 만남을 깊이 깊이 감사 드리며
부처님 법 만난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기도 드리며
이러한 모든 인연에 감사 드린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

지홍스님은 운문승가대학 21회,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시고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아산병원 불교법당에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 想 |

花樂逸

자 성 / 사교과



초연하여 기다림이 끊어진 것

편집부

초연하여 기다림이 끊어진 것[絕待]이 큰 하나됨[大同]이다.

무릇 하나되지 못하므로, 사물과 내가 둘이 된다.

사물과 내가 둘이므로,

형상이라는 상대물[形敵]이 생겨난다.

형상이라는 상대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다림[待]이 막심하다.

그러니 어떻게 끊어지겠는가?

내가 보건대 道를 잘 닦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므로,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사물과 내가 하나이므로,

형상이라는 상대물을 잊게 된다.

형상이라는 상대물을 이미 잊어버렸다면,

누가 기다리겠는가?

기다림이 끊어졌으므로 크고,

크므로 하나가 된다.

크게 하나가 된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그래서 만물을 한데 모아

자기로 삼은 사람은 성인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憨山自傳』中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 - 신라의 유식학자 圓測스님 -

원재 / 사집과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마음.

마음이 나의 주인인 양 시키는 대로 기뻐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밀하고, 행동하는 나를 보았다. 늘 속은 듯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나 실체가 없는 것이거나 간에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마음의 흐름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글귀가 참으로 나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탁월한 견해와 독특한 식견을 펼친 신라 유식학의 대가인 원측스님을 접하면서 나는 뺨려들 듯했다. 나는 답을 얻으리라는 확신과 함께 천여 년 전 먼저 수행하고 유식학을 공부하셨던 원측스님의 말자취가 궁금해졌다.

원측스님은 613년에 신라의 왕손으로 태어나서 3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였다.

15세에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당시에 중국의 불교학을 주도하고 유식학 연구를 개척한 법상과 승변스님에게서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등을 배우고, 여러 방면의 불교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히 우주 만물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임을 세밀하게 밝힌 불교 유식학에 매혹되어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스님은 외국어에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중국어와 타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 6개 언어에 능통했다.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새로운 경전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이해하고 가장 앞서 이들 경전의 주석서를 발표하며 해석을 선도했다. 원측스님이 당나라 황제인 태종에게 인정받고 측천무후가 부처님 대하듯 존경하고 모시자, 스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현장스님이 중국계 제자들만 입장시켜 유식학을 강의할 때 원측스님은 그 강의를 듣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 스님은 하는 수 없이 강당의 문지기에게 놔물을 주고 들어가 마루 밑에서 강론을 몰래 듣고 와서 바로 강의를 하고 주석서를 발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이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기록은 당시 유학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학문적 차별이 어떠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측스님이 보여준 대범함 이면에는 새로운 불교학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과 손가락만 움직이면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흥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행하는지 자신에게 자문해 볼 일이다.

원측스님은 어떤 시기와 나쁜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제자들이 대항하고 반박하자고 말하자,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부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 결국은 그 하나로 돌아오고야 마는 법. 우리에게는 하나로 돌아가기 위한 정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제자들을 타이르고 오직 불교연구와 수행에만 전념하셨다.

원측스님은 현장이 전하는 유식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언제나 空과 有의 두 집착을 함께 없애고, 대승의 中道를 밝히고자 했다. 신문왕이 그의 귀국을 여러 번 청했으나 측천무후가 그를 부처님처럼 존경하여 허락하지 않아 끝내는 돌아오지 못하고 佛授記寺에서 84세로 입적하셨다. 현재 중국 섬서성 서안의 흥교사에는 현장·규기·원측 세 분의 사리탑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마음이 일어날 때는 갖가지 법이 생겨나더니
마음이 사라지니 무덤과 움집이 둘이 아니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의식뿐,
마음 밖에 법이 없거늘 어찌 따로이 구하리오.

『송고승전』中에서

나는 답을 얻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나의 마음 자리를 이르시지 않았던가?
운문사를 만든 것도 내 마음이요,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만든 것도 내 마음이요,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다 이 마음이니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지어낸 이 마음이 없다면 각각의 이렇다 할 自性 또한 없는 것을…
걸림없는 탕탕한 대 자유인이고 싶다! ☺

깊이에의 강요

수오 / 사교과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바빠서 소등하고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던 치문을 지나, 밭으로 다니던 사집도 보낸 지금은 금당의 주인이다. 자유는 하나씩 늘어갔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무렵, 또 다시 난 무언가를 찾아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나는 고등학교 때 인상 깊게 읽었던『깊이에의 강요』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읽게 되었다.

그저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던 시절.

혼자만의 막연한 높은 이상과 흑백논리로 자신 스스로를 괴롭히던 시절. 그런 나의 내면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시험 때면 성적 때문에 조바심내며 열심히 하다가도 정작 시험 당일이 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결과를 외면해 버리곤 했다. 가족들에게도 그랬다. 마음의 의지처럼 삼으면서도 애정의 관심을 보이면 간섭한다며 반항과 반발을 하고, 그래서 내버려 두면 무관심을 원망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내면의 모순을 키워 갔다. 더 우스운 건 괴롭다고 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인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만족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고작 세 페이지 반 분량의 글이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귀가 알고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나의 이런 모습을 이 책의 주인공이 함축적으로 드러내었기에 난 충격과 함께 위로와 통찰을 얻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집『깊이에의 강요』에는 대표작 외에 체스 게임을 통해 예기치 못한 포석과 공격으로 승부세계의 혀를 찌르는『승부』, 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장인 뷔사르의 유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콘트라베이스』,『향수』,

『비둘기』, 『좀머씨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작가는 은둔적인 생활을 하며 지나치게 합리적, 계산적,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독특한 시각으로 인간 본래의 순수함을 추구하며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대표작인 『깊이에의 강요』의 내용은 이러하다.

뛰어난 미술 재능을 가진 젊은 여인이 첫 전시회에서 평론가가 던진 말 “당신 작품에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말을 무시했지만, 신문에 그 비평이 실리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도 그녀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뒤편에선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애석하게 깊이가 없어요”라고 한다. 깊이를 찾아 나선 그녀는 서점을, 화랑과 박물관을 전전한다. 어느 날, 시립박물관에서 어느 미술 교사가 인솔하는 학생들을 따라나선 그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앞에서 미술교사에게 묻는다. “실례지만, 이 그림에 깊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에 교사는 “저를 놀리실 생각이라면, 그보다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하셔야죠. 부인.” 그녀는 완전히 자신을 잃었다. 미술에 모든 것을 걸었던 만큼, 그녀의 삶 전체는 차츰 붕괴되어 갔다. 상속받은 유산으로 3년을 살다가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전부 구멍 내고 찢어 넣은 후, 고층건물에 올라가 뛰어내려 삶을 마감한다.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앞서 깊이를 얘기했던 평론가는 자살의 원인을 그녀의 작품에서 찾는다.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에서 이미 충격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

처음에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돈, 명예, 조건 좋은 파트너, 권위 등에 상관없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면, 세상의 평판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과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부정하던 사춘기의 그 오만에서 조금은 벗어난 지금, 난 그 미술가에게서 더욱 중요한 것을 배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이 선택하고 확신하는 바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몰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세속적인 평가를 조금은 여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반면 실천보다는 알음알이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반성해 본다.

“無常을 생각하고 칭찬과 비난을 모두 떠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외부 경계에 혼들리지 않으면서 내면의 열정을 간직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스스로 수행의 깊이를 추구해야 하는 修行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계에 어느 정도 적응한 나는 자신의 작품에 깊이가 없다는 말에 스스로 비판하고 자살할 만큼 예술 세계에 대한 강한 자존심과 애정을 가진 그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이 부럽다.

수행에도 순수한 열정 즉, 간절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나는 다시 한번 나의 구도 열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벗어나려 했던 부모님의 그늘이 사랑이었다는 게 느껴지고, 다른 이의 모습과 행동들이 옳고 그른, 좋고 싫은 것이 아닌 알록달록한 색깔로 느껴진다. 한 발짝 물러서서 본 나의 모습은 그들과 다름없는 꽃 한 송이. 각자 자신만의 향기와 색깔로 꽃을 피우리라.

봄이다. 운문사 가득 갖가지 향기로 피워낼 꽃밭을 생각하며 미소 지어 본다. ●



42회 졸업생을 보내고 온 도량이 텅 빈 것 같은 지난 1월이었다. 차 한 잔을 위해 괴하당에 강사스님들이 다 모였다. 주지스님께서, “겨울 방학은 길고 하니, 연수 교육을 대만으로 함께 갑시다.”라고 서두를 꺼내셨다.

“저는 요번 방학은 좀 곤란합니다.”

“저는 갔다 왔는데요.”

몇 사람이 함께 못가는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미 주지 스님의 八識엔 ‘대만 연수교육’이 스며들어 자리 잡고 있었다. 오! 스님의 원력에 가까운 설득력을 누가 벗어날 수 있으리요! …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는 빛나는 웃음을 머금고 인천공항에 모였으며, 대만으로 5박 6일 간 연수 교육을 다녀왔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 한 일인지 … 인상 깊었던 우리의 연수 교육을 中台禪寺, 佛光寺, 慈濟精舍를 중심으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대만의 중부 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중대선사이다. 이름이 말하여 주듯 이곳을 창건하신 知安 惟覺선사는 禪중심의 포교를 한다고 한다. 대만에만普자 - 보문, 보선, 보일 등 - 계열의 선방이 108개 있으며, 미국, 홍콩 등에도 지부를 가지고 있는 대 본산이다. 이곳의 특기 할 만한 것은 티벳의 포탈라 궁, 이탈리아의 성 피터 성당의 이미지가 접목된 초현대식 사찰 건물이라는 점이다.

우리를 맞은 지객스님은 건물 중심으로 안내를 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三寶를 나타내는 세 짹의 육중한 문은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열리며, 12미터 높이의 기둥

역할을 하는 신장님들은 그 기상이 마치 삼계를 받치는 것 같아 조각되어 있었다. 눈부시게 희고 단아한 불상과 보살상들은 남미에서 수입한 대리석이다. 또한, 7층 앞면을 장식한 유리를 지탱하는 줄은 그 유연성이 7.5 강도의 지진에도 전혀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비로자나 佛뒤의 우유 빛 후광, 천장에 반짝이는 복두칠성, 온 건물 전체에 흐르는 봄볕처럼 따사로운 편안한 조명 등은 특수공법으로 거의 천연광과 같다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佛法이 디지털, 나노 등의 침단 테크놀로지와 고급 소재와 예술적 감각을 만났다는 것이다. “와, 이들은 21세기 불사의 지평을 열었구나!” 우리 대중은 오직 침잠했으며, 숙연히 손을 모으고 그 앞에 마냥 서있었다.

중대선사를 떠나 늦은 저녁에서야 高雄에 있는 불광사에 도착했다. 우리를 맞아 준 사람은 동국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지부 불광사에서 포교를 하다 돌아간 은스님 이었다. 우선 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러보니, 밤공기는 새끼 고양이 같이 부드러운데다 대웅전 앞 넓은 뜰에서는 야간 법회가 진행 중이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단정히 앉아 법문을 듣는 이, 그 사이를 뛰어 다니는 아이들,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분위기가 아주 자유로웠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佛心이 갈아 놓은 논두렁에 물이 차듯, 가득히 내 마음을 채웠다.

조금 있자니, 슘 쉘 텈조차 주지 않고 한 곳이라도 더

보여 주려는 의은 스님이 칸이 여러 개 달린 오픈카를 가지고 왔다. 이것을 타고 정월이라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는 절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거리마다 코니마다 염불음악이 흐르며 반짝거리는 등불 장식이 서 양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켰다. 가는 곳마다 붉은 장식을 늘어뜨린 중국 등, 공작 등, 관세음보살 등, 학 등, 연못에 수련같이 떠있는 귀엽고 작은 등, 하늘로 올라가는 등, 온갖 모양의 등들이 있었다. 올해는 '개의 해'라고 특별히 개모양 등불이 동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 강아지 모양의 등불은 예절교육도 받았는지, 우리가 지나갈 때,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도 했다. 절이 아니라 마치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 공원이었다. '우리 같으면 한발중, 콜콜 주무실 이 시간에, 무슨 야단 법석인가! 이 신성한 절집에서!'라고 생각도 잠깐은 했지만, 스트레스 풀리는 정말 유쾌한 밤이었다.

다음날 아침 공양 후, 우리는 불학원을 방문했다. 눈매가 아무진 30대의 부학장 스님이 이곳의 학제와 운영을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크게 사회교육과 승가교육으로 나뉘는데, 사회교육은 불광산사에 속해 있는 각종 턱이소·초·중·고·대학의 교육을 말하고, 승가교육은 불교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 학생을 위해, 일어 불학원, 영어 불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학의 학제간 교류 풍토를 장려하기 위해 '세계 현·밀 불학회의', '선학학술대회' 등과 같이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주관한다. 이 외에도 현대적 문장부호를 사용한 「불광대장경」, 세계 불교학계의 우수 도서로 추천받은 「불광대사전」, 30여 년 간의 중국·대만의 선학연구 논문 목록을 정리한 「선학 논저 목록」 등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내놓고 있어서, 불광사가 불교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루를 머무는 동안 우리는 많은 스님들을 만났다. 무엇인가에 열중이었던 운문사 스님들처럼 환한 얼굴의 스님들, 선방 앞에 꽂꽂이 서서 시간을 알리던 스님, 너무 젊어서 우리를 놀라게 했던 40대의 예의 바르고 침착했던 주지스님 등, 우리는 이 대중이 의은 스님이 선물한 단향 염주 같은 향기 있고, 체계 있는 화합승가를 보았다. 대만 불교는 앞으로도 더욱 충만하리라 확신하면서 떠났다. "불광사 대중 스님들! 그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짜이젠"

마지막 날 우리는 비구니 證嚴스님이 세우신 자재의료원과 공덕회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름도 아름다운 화연이란 도시다. 태평양 바람으로 훈들거리는 키 크고 늘씬한 펜랑나무 가로수가 화련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자재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 하고 있던 절잖으신

기사님이 우리를 전시관으로 안내 했다. 법당에서 우선 눈에 띈 것이 있다면, 대체로 절은 천장에 온갖 장식이 있는데 비해 이곳은 바닥을 연꽃이 가득한 호수로 장식해 놓았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가 백조같이 그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층으로 올라가니, 증엄스님의 행적과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3만 명의 자제위원과 5백만 명 후원자들의 활동 상황을 전시해 놓고 있었다. 좀 지루하지만 깊은 신심을 가지고 안내하셨던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정리하여 보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재공덕회는 1966년 4월 14일 비구니 증엄스님에 의해 창설되었다. 처음에는 30명의 가정주부들이 저녁 빤찬거리를 사는 돈에서 매일 5원(한국돈 130원)을 대나무 저금통에 모았다. 또한 증엄스님도 제자들과 함께 양초, 병뚜껑, 단주 제작을 비롯한 수공업과 농사일, 폐품 재활용 등을 통해 자급자족 하는 생활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기금으로 1972년에는 자재의료원을 화련에 세웠으며, 이곳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봉사와 지역 발전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것이 1991년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태풍사건 이후 이 단체는 세계를 향한 구호의 손길을 뻗기 시작하였다. 2005년 8월까지 57개국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 58개의 사부실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로 성장을 해 왔다. 이제 자재공덕회 하면 국제 불교 봉사단체로서, 재난이 난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세계 속에 대만불교', '대만인들의 양심'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안내 설명을 듣고, 일행은 증엄스님이 출가 후 계속 머무시는 靜思精舍에 갔다. 스님의 자비행은 세계를 덮고 있지만 40년 전 부모님이 처음 지어주신 그대로 소박하고 조그마한 건물이어서 더욱 인상 깊었다. 그 뒤에 있는 공장에서는 아직도 그을음이 나지 않는 양초와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보문품에 관세음보살은 32웅신을 하신다더니 '아! 이번 세상에는 비구니 몸으로 나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뜻 깊은 장소에서 우리일행은 단체 사진 한 장을 찍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바쁜 일정의 연수 교육은 끝났다. 위의 세 절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불교"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 몸의 척추처럼 견고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점은 진보적인 한국 비구니 승가는 물론 아직 강원에 재학 중인 후배 스님들한테도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 있는 산 교육을 경험토록 해 주신 우리의 주지스님께 한마디, "쉬에 쉬에 — 感謝." ◉

황금빛 수선화 일곱 송이

임의진 / 시인



來生이 찾아온 것인가

이렇게 寒梅 피어난 뒤 사슴 뿔 오르듯

우쓱우쓱 돋아나는 당신의 습길

살아 돌아온 사람마다 껴안아 주리

살아, 살아 솟아오른 가지가지마다 매만져 주리

땅바닥선 손도 내밀고

하늘에선 안녕 후후 새들의 인사

수선화가 피는 철이다.

전에 살던 목사관에서 가져올 욕심도 있었으나, 행여 한 마음이라도 미련이 생길까 봐 광주 나가는 참에 화원을 찾았다. 두 손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 비닐화분 하나에 3천원 달라 했다. 행여 수선화가 듣고 낙담할까 봐 흥정도 없이 세 뿌리를 샀다. 지난 겨울은 하도 추워서 야생화 뿌리마다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크다. 더러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오죽 추웠던 겨울이었나. 눈은 또 산더미처럼 내렸고. 푸른 수액을 빨며 올라오는 어린 싹들을 보면 생명의 경이로움에 탄성이 절로 난다. 살아 있음의 신비, 동시대를 같이 숨쉬고 있다는 동지애. 41살에 요절한 판화가 오윤의 작품 가운데 <봄의 소리>가 있다. 봄이 밀려드는 남녘을 향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까마귀. 간절히 봄을 기다리는 누군가 있기에 찰랑찰랑 봄물결이 흘러드는 것이라. 화첩을 넘겨 <봄의 소리>쪽을 꽈 누르고 책상 위에 빙쳐 놓았다. 백련사 동백숲과 이웃하여 지냈던 강진 살적, 누구보다도 봄을 오래도록 누렸다.

내 생에 그처럼 여유로운 시절은 없었다. 북방보다 일찍 봄이 찾아드는 따듯한 대지, 따듯한 바닷가, 수선화가 지천으로 피었다. 유독 수선화를 좋아하여 예배당과 목사관 구석진 어디라도 수선화 뿌리를 펴 날랐다. 그리하여 소읍에서는 가장 으뜸인 수선화 밭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예배보러 오는 사람보다 수선화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 출석 교인들은 몇 분 안 되어도 수선화는 참말 대부흥 전도폭발이었다. 친구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물론이고, 해남이나 강진 등지에 사시는 친구 스님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 친구 일철 스님, 모두 우리집 서 수선화 한 뿌리씩 분양받아 각별히 돌보셨다. 나

도 혹시 41살에 죽을까 몰라 마음이 조급했던 때였다. 어떡해서든 온누리가 봄누리 되어, 수선화로 넘실거렸으면 싶었다. 사월 초파일이 되면 노란색 양초를 밝혀 연등을 내걸었다. 수선화와 어우러진 노란색 연등이 봄 밤을 수선화 잔치로 만들었다. 아기부처님도 좋아서 예수님이랑 쿵쾅쿵쾅 뛰어노실 것 같았다. 땅뙈 열어불은 마음들마다 얼음 녹듯 녹으라고, 벽 없이 담 없이 그지없이 한없이 사랑하며 살자고 내건 연등, 설교 때 조근조근 설명을 해드렸다. 그러나 사랑하자는데, 신앙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정녕 없다면서 반대가 무서웠다. 대체 그 착한 부처님이 뛰난 마귀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오해들이었다. 돈 욕심, 힘 승배, 그런 마귀 대왕을 하느님으로 모셔 섬기잔다. 멋모르는 젊은 목사의 치기일 것이라 지켜보다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셨는지 험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젊은 교인들은 나보고 사탄 연탄 구공단이라며 비난했다. 결국 산간벽지까지 버스를 보내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큰 교회로 떠나 버렸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도 오해가 컸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날보고 빨갱이 간첩이라 황당한 의심을 하였다. 외벽에 걸린,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현수막 때문에 광고법 위반이라고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 정보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정보과 형사들이 통통거리며 들이닥쳤다. “뭘 놈의 수선화가 이라케 곱다요?” 형사도 수선화에 대해 탄성부터 내질렀다. 혐상궂은 이야기가 오갈 리 없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 예배당 안에는 일곱 촛대가 깜박거렸다. 뿐만인가. 마당엔 황금빛 수선화 일곱 송이가 꽂봉오리

를 오무렀다 꿨다 깜박거렸다. 부활절에는 안도 밖
도 모두 촛불을 밝힌 듯 황금빛이 가득하였다. 나는
꽃 뜨락, 촛불 잔치집을 거닐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불
렸다. 브라더스 포가 불렀던 〈일곱 송이 수선화〉는
기타를 들고 가끔 친구들 앞에서 부르기도 하였다.
목소리가 목소리다 보니 앵콜! 연호는 없었으나 수
선화를 같이 복창하면서 가슴마다 뜨거워지는 무엇
이 있었다. 당신이 살아 돌아온 일에 대하여 어찌 감
격하지 않을순가. 당신이 나를 불러주신 일에 대하여
어찌 감사하지 않을순가. 이란의 시인이며 이슬
람 경전 「코란」의 시편 저자이기도 한 잘랄루딘 루
미는 이렇게 노래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라. 여기
에는 별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석류꽃 그늘 아래 달
콤한 연인이 있다. 그대 만일 오지 않는다면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 만일 온다면 이 모두 아무것
도 아니다.” 남미를 여행할 때 집시들의 목청으로
들었다.

음유시인 빅토로 하라가 처음 불렀던 노래 〈영혼
은 깃발들로 가득하다 Ell Alma Llena De
Banderas〉라는 … “여기 땅 아래 당신은 잠들지 않
았습니다. 형제여, 친구여! 당신의 심장은 봄이 새
싹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속삭이는 양 바람
은 불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 태양을 향해 묻혀
있는 당신의 얼굴, 새로운 대지는 당신이라는 씨앗
을 덮고 그 깊숙한 뿌리에서 새 날을 밀어 올릴 것입
니다. 봄꽃을요! … 상처입은 당신의 발에 비친한 자
들의 손이, 씨 뿌리는 건강한 손들이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잉태할 것이며 당신
이 간 곳으로 그 생명들은 노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곳 지상에서 영혼은 우리를 전진하는 깃발
로 변모하게 할 것입니다.”

그 노래가 끝나자, 나는 속으로 일곱 송이 수선화

를 새겨 불렀다. 땅 속 깊이 묻혔다가 노랗고 푸르게
돌아오는 수선화는 참말 의미심장한 개벽의 꽃이다.
슬렁슬렁 나이나 먹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을 따른다
면 기기에 희망이나 기대할 무엇이 있겠는가. 고난
의 깊은 자리에 앉아 본 친구, 죽음을 맛본 친구, 한
번 크게 자기를 전환한 친구를 만나 그를 동지요 스
승으로 섭겨 모신다면, 오롯이 다시 피어날 수 있으
련만. 어떤 나그네가 3일 동안 길을 잊었다가 기적
적으로 한 사람을 만났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
면서 풀어안았다. “무엇이 좋다고 이러시오?” “당신
을 이 외딴 곳에서 만나다니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나, 나도 길을 잊은 지 7일째 된
사람이요.” 만약 수선화가 봄 길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면, 별 다를 것 없는 겨울의 소식이라면 적이
낙담하였을 것이다. 수선화가 솟아오르면 어김없이
봄이다. 내가 깨어나면 세상이 변한다.



세상이 봄누리다. 계명성이 밝았다. 밥을 짓고, 고
구마를 썰어 밥솥에 엎었다. 출출할 때 먹을 간식거
리다. 꽃샘추위로 눈발도 날렸다. 그러나 일기예보
에 의하면 내일부터 풀린다고. 밤에는 봄옷을 꺼내
정리할 생각이다. 두꺼운 겨울 잠바는 깨끗이 빨아
서 장롱 속에 들어야겠다. 올해는 개띠 해라 공식적
으로 개멋(?)을 부려도 된다. 노란 빛깔 감도는 티

셔츠도 한 장 있었으면 좋겠다. 사서 입을 생각은 없고 치자열매로 물을 들이면 된다. 수선화와 같은 색깔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싱싱한 봄내음이 옷차림에서도 느껴지게끔. 그래 쑥물을 들여 보는 것도 괜찮겠다. 쑥이 올라온 즈음, 한 광주리 캐서 말리고 쑥물을 한번 짜내 보리라. 하얀 티셔츠는 어찌다 보니 이리 늘어나서 못 입고 버리게 생겼다.

그렇게 염색을 해서 입으면 재활용도 되고 울울하던 기분도 바뀌고… 하얀 겨울, 잿빛 겨울이 물러나고 노랗고 빨갛고 푸른 봄이 시작되었다. 봄빛을 바꿔 목숨을 부지하는 생명들이 있다. 어쩌면 사람도 봄날이면 몸 빛깔을 바꿔야 하는지 모른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 예고에 빠져 살게 되면 삶은 얼마나 단조로운 것인가. 무료하고 심심하지 않도록 웃을 갈아 입으라. 물론, 내면의 웃부터! 수선화가 지면 봄은 점차로 중반부로 기운다. 수선화랑 닮은 꽃 무릇이 여름의 선발대로 소매를 걷어올리고, 금새 가을 철새가 날아왔다가 북방으로부터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겨우내 언 땅속에서 수선화는 새날을 대망하리라.

안거를 제대로 난 스님처럼 정진의 끝날 드맑은 눈망울을 하고 세간에 나타날 것이다. 깨째하고 치사한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눈을 반짝이면서 말이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물어 볼 지도 모른다. 나에게 수선화가 그렇다. 동안거를 마친 친구 스님 같다. 부활절 때는 예수님 같기도 하고 초파일에는 부처님 같기도 하다. 가장 종교적인, 정엄무구한 미물의 가르침 하나 캐묻고

보니 꽃 구경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꽃은 곳이어서 여기 이 세상 꽃은 곧이어서 이제 이 세상 오시는가 가시는가 살피다가 잊다가 깨어보면 다른 세상 환하였다가 어두웠다가 알 듯 말 듯 잊을 듯 떠오를 듯 감감하고 암암하여라. 향기에 대취하여 눈 감고 주저앉으면 여기 봄비 오시는 가문 들판 이제 꽃들의 만장한 승단 맨 앞을 보라. 수선화의 가부좌 머지 않아 이 산골짜기 외딴집도 황금빛 수선화가 가득찰 것이다. 비천한 손으로 심은 수선화가 사방팔방 만발할 것이다.

절집에서는 천불전 무수무량한 부처님 정도라면 교회에서는 초창기 일곱 교회를 성장하는 일곱 촛대쯤. 그렇게 수선화가 우르르 피어날 것이다. 어디간들 통속적인 교인은 나를 찾을 리 없고, 수선화 알뿌리만 이리 펴 나르고 저리 펴 나르고 해찰만 부려쌌던, 수선화 꽃송이들의 목사 노릇을 여기서도 연장하는가. 음모적인 가짜들이 주름잡고, 말 좋은 자들이 우두머리로 서고, 진짜인 듯 속이며 사기를 치는 고단수들에게 능욕, 이용당하느니 차라리 수선화 목회, 수선화 교회라도 잘 하였으면 싶은 것이다. 정보과 형사도 탄성을 지르고 웃던 황금빛 수선화 일곱 송이! 일곱 명의 스승 못지 않은 일곱 송이 수선화 앞에 무릎을 모으고 한 소식 퀘뚫으며 살아갈 테다. 나는 아직 멀었다. 아! 그러므로 나는 이제 멀지 않은 것이다. ●

글쓴이는 전에 강진 남녘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시인이다. 지금은 전남 담양 산골에 홀로 은기하여 글을 쓰며 지낸다. 시집『사랑』(샘터), 수필집『참꽃 피는 마을』, 『종소리』(이레), 독집음반『하얀새』, 선곡음반『여행자의 노래 1·2』, 『보헤미안』(신나라) 등을 펴냈다. 홈페이지 www.sunmoodang.com.



간절히 애쓰고 애써라.

- 제 14회 동문 법해스님 -

진 육 / 사교과

원

두반 일을 마무리하며 經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인 자비참 기도 회향의 기쁨과 부푼 가슴으로 선배탐방의 목적지로 떠났다. 선재동자의 마음도 이러했을까? 선지식을 만나려 간다는 설레임에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통일대불의 수호를 받는 듯 법주사 마애불 곁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수정암.

수정암의 도감스님이자, 운문사 14회 졸업생이신 법해스님.

우리가 찾아간 그 날도 스님께선 사중 일로 무척 바빠 보였다. 혹 우리가 더 바쁘게 헤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이런 우리의 우려가 무색하게 스님께서는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선객으로만 살다가 소임을 맡게 되어 하는 일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시지만, 그래도 외호를 기쁨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신심으로 살아가신다는 그 말씀에 밝고 힘이 넘쳐 보였다.

후배들의 모습에서 당신의 옛일이 생각나셨는지 … 그윽한 미소로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 학인인 처지이고 보니 스님의 학인 시절을 여쭙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수정암으로 출가했지. 초발심자경문을 보는데 참선 공부가 너무 하고 싶더라구. 그래서 강원은 안 가려고 했는데 어른 스님들의 만류로 강원을 갔어. 그러다 「선요」를 보고 발동해서 또 선방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때 노스님이 경전 보고 공부하라는 말씀에 운문사를 졸업할 수 있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노스님께 고맙지. 강원은 꼭 나와야 해. 일하면서 배울 게 많아.”

사집의 『도서』나 『선요』를 보면서 누구나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쯤 가졌을 것이

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학인에게 스님은 거쳐야 할 과정은 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원하시던 참선공부를 하려 가셨던 이야기와 화두 타러 가셨던 일을 생생히 들려주셨다.

“그렇게 강원 졸업하고 나니까 간월암이 좋다고 해. 기기로 기도하러 가던 중에 해인사에 성철스님이 계신다는 거야. 도반스님이 큰스님께 화두를 받으려 가자 그래. 좋다고 갔지. 그런데 성철스님이 ‘외상화두 타러 왔어? 난 외상은 안 줘. 당장 삼천 배 하고 와.’ 하셔서 바로 시작했지. 새벽이 되어서 야 끝났는데 아침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 결에 어두운 산길을 기어 올라가는데 손전등도 나가고 아주 힘들게 올라갔지. 성철스님이 우릴 보고 깔깔 웃으시며 ‘밥도 안 먹고 이 새벽에 왔네. 호랑이가 안 물어 가드나?’ 이러시며 화두를 주시더라니까. 그렇게 화두를 받아 해인사 삼선암에서 3년 결사하면서 의심나고 공부에 문제가 있으면 혜암 큰스님, 자운 큰스님, 일타 큰스님 등 큰스님들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리워. 그런데 3년 결사해도 결과가 없는 거야. 얼마나 원통한지 … 그래도 도반넷이 보일러 고쳐가며 시작한 결사라 돌아보면 그때 가 제일 열심히 살았고 전성기였지. 가행정진, 장좌 불와 등 안 해본 것이 없어. 뭐가 됐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스님의 촉촉히 젖은 눈가에는 가르침을 주셨던 선지식들의 빈자리로 허전해 하는 마음과 그리움으로 역력했다. 그런 스님을 보며 우리 곁에도 호된 꾸지람이나 경책을 아끼지 않는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 부럽기까지 했다. 선지식을 만나기 위한 발원은 수행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았다.

지옥에 가서도 화두를 들라고 하셨다는 성철 큰스님의 말씀에 따라 알람시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새벽 2시면 일어나서 한번을 눕지 않으신다는 스님.



그렇게 열심히 하셨기에 잠자리 들기 전 들었던 화두는 일어나서도 간절히 다시 들렸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고생들이 공부하는 데 큰 힘이 되셨다고 한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공부하는데 힘들어 하는 후배들에게 스님은 “건강과 신심이 따라줘야 공부할 수 있거든. 나도 처음에 반가부좌도 못했어. 앓을 때 반가부좌 못하더라도 자세를 반듯하게 앓아야 해.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단정해야 잠을 극복할 수 있지.”라고 하시면서 아프더라도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다. 스님은 신심을 자꾸 자꾸 북돋아 주어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수행자는 참기 어려운 걸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힘들어도 간절하고 간절하게 애쓰고 또 애써서 해야 머리 깎고 사는 중인 거야.”

선재동자는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먼 길도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닌 가까운 곳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며 살아가시는 스님을 뵈니, 자주 자주 찾아뵙고, 스님 곁에서 경책 받으며 공부하고 싶다는 바램도 해 본다.

우리는 이제 평생 중노릇의 시작점에 있다. 시작점에서는 잘 하는 것 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며, 뵙고 돌아오는 길이 가슴 벅차고도 아쉬웠다. ●

봄 날

이혜경 / 소설가



일요일, 다른 도시에서 사는 조카가 왔다. 초등학생인 그 애는 겨울방학 내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오고 싶어했는데 어째 시간이 잘 맞지 않았다. 끝내 내 집에 못 온 채 겨울방학이 끝나자, “봄방학이 시작되는 날 가방 싸들고 이모네 집에 가서 끝나는 날까지 있을 거야.” 하고, 집주인인 내 허락도 없이 선언했던 아이는 정작 봄방학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야 했다.

아이가 내 집에 오고 싶어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까치 때문이었다. 3층인 내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그걸 보고 간 아이는 겨우내 그 까치를 걱정했고 생각날 때마다 안부를 물었다. ‘이 추운 날씨에 까치들이 얼지 않고 잘 있는지…’ 아무래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가 보았다. 아이가 온다는 바람에 급히 베란다 청소를 하다가 화분의 옥잠화가 새싹을 내민 것을 발

견했다. 지지난해 여름, 화원에 갔다가 모종이 나와 있기에 반가워서 세 뿌리 사서 심어둔 것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좋아했지만 도시에선 보기 어렵던 꽃이었다. 겨울 초입에 몇 안 되는 화분을 방안으로 들어놓으면서도 옥잠화만은 베란다에 그냥 두었다. 한데에서 자라는 꽃이니 추위를 겪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죽은 듯 흙 속에 파묻혀 추위와 건조함을 견딘 구근이, 날이 풀리고 별이 길어지자 어김 없이 새순을 밀어올린 것이다. 아이가 왔을 때 보여줄 게 또 하나 생겼다.

뾰족한 순을 들여다보자니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욕심이 새록새록 돌았다. 땅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고 싶다는 욕심이었다. 몇 년 전, 남의 밭 귀퉁이를 빌려 채소 몇 가지를 심어 소꿉장난처럼 밭농사 흉내를 낸 적이 있다. 손바닥만 한 공간이었는데도 웬 손이 그리 가던지, 파릇파릇 잎을 펼친 그것들도 목숨이라서, 오래 비울 수가 없었다. 뭐든 인연 맺으면 매이거나니, 하면서 이듬해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봄만 되면 바람난 처자처럼 들썽거리며 자투리땅을 넘본다.

이른 봄볕을 받으며 아이가 들어섰을 때, 까치는 제 집 언저리에서 알짱거리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무기운 걸 들 일이 있을 때면 제 손이 앞서 나가고, 제 생일 선물 대신 먹을 걸 싸들고 고아원이나 가자고 부모에게 말하는 아이는 그걸 보고 마음을 놓았다. 아이는 정이 많은 만큼 노여움도 많이 타서, 두 살 위인 제 언니와 자주 다했다. 언니 쪽은 제 할 일을 또박또박 알아서 하는 대신 남의 일엔 나 몰라라 하는 성품이었다. 성격이 다르니만큼 자주 부딪치는 모양이었다.

“세상에, 난 싸운다 싸운다 해도 여자애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못 봤어. 우린 자랄 때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 아이의 엄마는 종종 얼이 빠진 목소리로 전화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 자매는 싸운 적이 없었다. 나와 세 살 터울인 아이의 엄마도 말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그 위의 두 언니들과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성격이 다른 네 자매가 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말다툼 한 번 없었다. 전엔 그게 우애를 상징한다고만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과연 건강한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다.

채소만 해도 습기 찬 곳을 좋아하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별이 짹짱해야 하는 게 있고, 기름진 흙을 좋아하는 채소 옆에 모래 섞인 박토여야 수확이 실한 것도 있는데, 며칠 전에 꾼 이상한 꿈, 새 학급에서 만난 친구들, 가족여행 이야기 등을 제잘거리던 아이는 친구네 차를 엎어 타고 혼자 온 길이 고되었는지 낮잠에 빠져들었다. 막 젖가슴에 명울이 잡히기 시작한 아이의 속에 깃들인 온갖 가능성은, 흙 속에 고요하고 단단하게 웅크린 채 별과 습기의 기미에 민감한 씨앗처럼 저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발아하고 만개할 것이다. 싹이 트기도 전에 씩어버리거나 다른 동물에게 먹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아이는 한 생을 건너갈 것이다. 인생을 계절로 치자면 채 꽃망울 터 뜨리지 않은 이른 봄날일 아이, 까치가 깍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봄 꿈에 빠져든 아이 위로 햇살이 환하다.

천지산천의 목소리 – 동산 양개

지성 / 운문승가대학 중강



위산대원선사 아래 천여 명의 수행자가 모여 들었다. 그는 동산을 각별히 총애하였다.

어느 날 위산이 홀로 산책하고 있었는데 동산은 서둘러 뒤를 따라가 그림자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塔院의 서쪽으로 밭이 있는 곳까지 왔을 즈음, 동산은 스승의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저는 예전에 혜충국사의 無情說法에 관해 듣고 그 뜻을 깊이 궁구하였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고 싶습니다.”

위산은 기쁜 듯 동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나? 나에게도 조금은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을 뿐이다. 내가 꺼내기 아까워서가 아니다.”

“부디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가 낳아 준 肉의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지.”

“도대체 스님과 함께 발심해서 수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예릉으로 가면 동굴에 사는 운암이라는 도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풍격을 우러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자네의 마음에 들게 될 것이다.”

(동산은 평생의 스승으로 삼을 운암을 비로소 발견한다.)

동산은 스승(운암)에게 물었다.

“無情說法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무생물이어야 비로소 그것을 들을 수 있다.”

“스님은 그것을 들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자네는 이미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도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없겠네요?”

“내 설법조차 들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無情說法을 들을 수 있겠나?”

동산은 이 문제의 의심을 끝까지 물고 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었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무생물이 설법하니니, 생각지도 못했구나

만일 귀로 듣는다면 그것은 알 수 없다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알 수 있다

동산은 처음 두메산골 작은 절로 출가해 『반야심경』을 읽다가, ‘눈도 귀도 코도 몸도 뜻도 없다 [無眼耳鼻舌身意]’라는 구절에서 뜻밖에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이렇게 나는 눈도 귀도 코도 있는데 어째서 경전은 없다고 하는 걸까?’ 의심하여 그것을 스승에게 물었으나 스승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오설산 영묵선사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반야

『심경』의 ‘無眼耳鼻舌身意’라는 구절에 의심을 가진 젊은 동산은 항상 눈은 물건을 보는 것,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분별적인 집착에 고민했을 것이다. 이제 無情說法을 듣게 되어 그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던 것이다.

눈으로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無情이 말해 주는 진리가 완전히 살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야심경』에서 말한 深般若를 행할 수 있다. 그것은 부모가 낳아 준 육체의 입이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승 운암이 입적하려고 하자, 동산이 물었다.

“스승께서 입적하신 뒤에 만일 누군가가 ‘너는 스승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라. ‘그는 단지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스승의 말을 들은 동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스승이 다시 말한다.

“이一句만큼은 가볍게 납득해서는 안 된다. 천번이나 다시 태어나고 만겁의 세월이 지나도 결국 그것으로 끝장이다. 네가 잠깐이라도 일념을 일으킨다면 이미 네 키보다 더 자란 풀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하물며 말로 설명을 보태겠는가.”

이렇게 스승이 말을 마쳐도 동산은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동산의 침묵을 지켜본 스승은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때, 동산이 말했다.

“스승님, 부디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이 몸이 계속되는 한, 그 문제 해결에 畫力하고 싶습니다.”

스승이 입적한 후, 3년째 되는 기제사를 마치고 동산이 선배와 함께 위산에게 가려하다가 마침 潭州 근처에서 큰 개울을 건너려고 할 때였다. 선배가 먼저 물을 건너고 동산은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갑자기 과거의 질문이 머리에 스쳤다. 갑자기 동산의 안색이 변하더니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다. 선배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이제야 우리 先師께서 지도해 주신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송을 읊었다.

결코 그것을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자기와는 이득히 멀리 어긋나 버린다
나는 지금, 혼자서 걷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아닌 나 자신이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계합할 수 있다.

동산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깨달았다. 거기서 스승의 은혜를 느꼈던 것이다. 그가 물 속에서 본 것은 바로 스승의 초상이었다. 초상은 眞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정한 초상으로서의 眞은 형상이 없는 것.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는 그림자를 보고 스승의 真에 계합했던 것이다. 거기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있는 그대로(如如)의 세계란 모두 그러하다.

육신 외에 달리 法身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생물 외에 생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생물의 설법이야 말로 살아 있는 진정한 생물의 목소리다. 담장이나 기왓장은 항상 古佛의 마음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다. 고불의 마음은 기왓장이나 담장뿐만 아니라 시냇물 소리와 山色도 다 포함된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종교도 아니고 인격적인 범신론도 아니다. 오히려 무한한 시를 탄생시키는 모태가 되며 가장 인간적인 자연이다. 자연과 인간의 분별을 초월한 곳에 영원한 생명을 직관할 수 있다. ◉

* 위 글은 柳田聖山, 『純禪の時代』(선문화연구소, 1984)를 필자가 발췌해서 엮은 것이다.

푸르게 깨어 있는 저 소나무처럼

- 법정스님을 뵙고 -

동진 / 대교과



“중이니까,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중 얘기를 해야지”

처음 하신 말씀.

“누가 그러는데 내가 여기 운문사를 잊을 만하면 나라난대요, 4년 주기로. 여기 도량이 좋아서 … 저 소나무, 만세루 다 좋지만, 나는 비로전 부처님이 참 좋아. 다른 불상들은 대개 다 엄숙하고 그런데, 참 친근한 게, 여기 부처님은 가부좌를 안 하고 있어요, 참선하다 보면 다리가 저리거든. 그래서 슬그머니 내려놓은, 일하다 오신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편안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

- 스님께서는 운문사에 오신 까닭을 서두로 해서, 운문인에게 필요한, 이를테면 ‘중 얘기’를 여덟 가지로 하셨다. 마치 부처님께서 八正道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갑자기 미치도록, 그 답을 궁금하게 만드신 가슴 저린 그 말씀들, 그 여덟 가지를 여기에 기록한다.

그 하나, 修行人

“수행인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磐石, 주춧들을 튼튼히 해야 한다. 학인 시절은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어떤 수행자가 될 것인지 스스로 길을 마련해야 한다. 순간순간 출가 수행자임을 생각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직업적인 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각자 뒤돌아보라,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떳떳하고 올바르게 지내고 있는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 직업적인 중? 설령설령 직장 다니듯, 오늘 하루, 어떻게든 보내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게, 召命意識 없이, 책임감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중? 우리는 과연?

그 둘, 깨달음

“늘 깨어있는 상태가 깨달음이다. 별게 아니다. 照顧脚下. 선방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비칠 조, 돌 아볼 고, 벗어 놓은 자기 신발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어떤 몸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얘기다.

강원에 있는 현판, 주련, 이런 것들이 다 法門이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런 것을 대할 때 그것이 다 법문이라는 걸 안다. 그냥 살면 세상은 그저 그런 거다.

이 도량에 있는 것 중에 오래 전부터 살아 있는 존재는 저 소나무와 은행나무다. 몇백 년 동안 많은 스님들을 다 보았을 거고, 별별 회한한 물건을 다 보았을 거다. 그들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정정당당한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저 푸르른 소나무를 보라, 도량의 팬창은 대상들을 보았으면 그것을 골라서 뚫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후배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고, 저 소나무, 은행나무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다. 저 소나무는 어제의 우리의 모습을 정말 다 보았을까. 보고 뭐라 생각했을까. 눈을 감고 싶지는 않았을까.

케네디 미망인은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당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무심결에 미소 지었다지. 드러난 곳에선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인간의 습. 솔직하지 못한 모습.

자, 소나무가 주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무정물인 저 CCTV만큼이라도 신경 쓸까. 정신 번쩍 차리고 隱現이 모두 明徹하게 그렇게 살게



될까, 문제는 그거겠다. 운문인이여, 말하라. 소나무에게, ‘나는 너에게 떳떳하다’라고.

그 셋, 經學

- 나른한 봄날, 강사스님은 고구정녕하게 한 자라도 더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려 애쓰시지만, 그 많은 것을 넣기에는 머리는 너무 단단하고 몸은 고단하다. 부처님은 서른 나이에 성불하여 저 좋은 말씀을 하고 또 하고 또 하셨건만, 우리는 같은 나이에 앉아 듣는 것도 못해서 졸고, 그렇지 않으면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 열심히 들어도 문자 뒤에 숨은 뜻을 골라내기는 국수 가닥 속에서 실 찾기보다 힘들고, 이런 게 정말 중노릇에 도움이 되나? 회의하기 일쑤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리 나약한가, 땅을 치고 울 일이지만, 하루 세끼 밥은 맛나고, 늘 체하는 문자와는 달리 소화도 잘 된다.

“부처님, 祖師스님들의 가르침을 다만 文字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교통으로 빙아들여야 한다. 2500년 전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닌이나 그런 제자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글은 지혜가 아니다. 문자를 통해서 지혜를 들어야 한다. 문자를 통해 그분의 근원과 활자화되지 않은 소식을 알아야 한다.

조사의 말씀에서 내 안에 있는 무지의 마음을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 그래야 하루하루 經典을 배우는 의의가 있다. 難字나 찾다 보면 그 뜻은 다 뒷전이고, 그러다 보면 강원이 짙어진다. 그러면 빛만지게 되는 것이다.”

그 넷, 願

“부처나 조사나 다 원의 힘으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성자가 되었다. 원을 세우면 어떠한 난관도 이기지만, 원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다치게

된다. 진정한 원을 세우고 원을 實踐해야 한다. 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원과 行이 일치되어야 智慧가 굽어진다. 원은 없고 행만 있어도, 행은 없고 원만 있어도 안 된다. 보현행원의 수행, 그게 사는 것이다.”

- 원을 세우고 원대로 살았는가? 부처님은 我當安之, 끝 중생들을 救濟하겠다는 大慈悲心 大願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참 신기한 분이다. 왜 그런 원력을 세웠을까. 모두 다 저 살기 바쁜데, 할 일도 없으셨나 … 대자비심 때문인가. 그 분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 가보고 싶었다. 그런데 도대체가 중생 구제는 너무나도 머나먼 일인 것만 같고, 나 자신 구제도 못해 허덕 거리는 하루, 원은커녕 원수 같은 하루만 안 되어도 좋겠다. 자조할 때에, 대원력을 세웠던 그분의 하루의 삶이 너무나 궁금해지는 …….

그 다섯, 수행자의 길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다. 내가 절밥 먹은 지 오십 년, 나도 깜짝 놀랐다. 잠깐 동안에 오십 년이다. 내가 그동안 뭐 했는가, 시주 밥만 축냈지. 그 보답은 천부의 일도 못했다. 짐꾼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늘어서 한탄하게 된다. 수행하지 않는 이에게는 늙음과 죽음이 있지만, 수행자에게는 늙음이 없다. 늘 살아 있는 존재에게는 세월이 불지 않는 다. 늘 초심으로 살기 때문이다. 지금이 순간, 탁마 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수행자에게는 육신의 나이 말고, 法臘이라는 게 있다. 법랍이란 어느 안 거 한 철 났다고 해서 그게 법랍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한 철 났다고 그걸 자랑심이 내세우는 이가 있는데 앉아만 있는 건 소용없다. 깨어 있는 시간의 나이가 법의 나이다. 한 철 두 철 났다 하는 것은 형식일 뿐이다. 한 생애를 통해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가 바로 법랍이다.”

- 우리는 법랍 몇일까. 깨어 있었던 시간. 후하게 인심 쓰고 낮을 붙혀가면서 혼집어 보아도 올올이 깨어 있었던 순간을 여간해서 끄집어 낼 수가 없다. 是非非는 事事件件 일어나고, 앉으나 서나, 망상은 뭉개뭉개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자면서도 시비요, 꿈이다. 이 꿈은 언제 깨나. 깨어나라 운문인이여 !

그 여섯, 境界

-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저기 서 있는 그리운 나를 하루 빨리 만나고 싶은데, 나를 만나려 가는 길에 장

애가 너무나도 많구나.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은, 수행자의 本分을 쉽게 잊게 만들곤 한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짐짓 의면해 온 것들. 힘들어서 눈을 감고 저 그리운 나를 만나려 가는 일을 포기하지만, 이젠 눈을 뜨라고 늘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스승이시여,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장애는 정말 극복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것.

“障碍를 飛躍할 수 있는 찬스로 생각해야지 비켜 가려고 하지 마라. 돌아보면 장애를 경주를 용케도 했구나 싶다. 그 많은 장애들을 잘도 넘었다 싶다. 장애는 뛰어넘어야 한다. 장애를 이겨내기다 보면 장애도 장애 같지가 않고 장애를 이겨내는 재미라는 게 있다.

살다 보면, 세속적인 인연에 얹힐 수가 있다. 그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한다. 내가 어째서 출가했는지, 내가 출가인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세속적인 쾌락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출가 수행자의 길이 아니다. 그런데 필리면 망가진다. 남 얘기가 아니다. 장애에 부딪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이다.”

그 일곱, 사는 法

- 철마다 보파리를 싸서 집으로 보내고, 다시 끄집어 오기를 4년을 반복한다. 보내고 오는 그 값은 얼마나, 얼마나 번거로운가.

물질 시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새 물건이 등장하고, 봐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신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틸 것,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 어른 스님은 예전에는 비누도 싸 가지고 다녔다 하고, 갑자 일곱 개로 사십 명의 대중이 먹었다 하고, 더 이상 퀘낼 수가 없었던 숨웃 이야기, 차비 아끼려고 십 리를 걸어 다닌 얘기 등을 하시지만, 무슨 지난 얘기는 저리도 자주 하시나 …… 건성으로 듣게 된다.

이 시대 젊은 중들은 어찌 알랴. 저 시대의 어른들은 정말 비누 하나를 싸 들고, 친리 길도 멀다 않고, 일념 화두를 찾아 정말 걸어서, 걸어서 다녔다는 것을.

“삶의 原則을 정해야 한다. 먹는 것, 입는 것, 물건 가지는 일도 小欲知足으로써 처신해야 한다. 가진 것이 적어야 생각이 덜 흐트러진다. 먼 길을 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한다. 짐이 무거우면 오래 가지 못한다. 清廉승가가 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

야 한다. 생각이 흐트러져서根源의인 생각까지 흐트러뜨린다. 내 자신을 시시때때로 돌아보자.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갖는다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져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정해 두어야 한다.

강원에는 소지품 검사라는 게 있다. 他律의인 규칙인데 그것을 제기로 수행자가 가져야 할 것과 아닌 것을 알고 몸에 익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규칙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훌가분하게 살 수가 있다.”

그 여덟, 行

“살다가 여러 갈등이 생길 때는 육조스님을 생각한다. ‘本來無一物’이라 하신 말씀. 우리는 올 때 민손으로 왔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중도 잘 살아가려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원이다. 원과 욕심이 어떻게 다른가. 욕심은 사적인 것이고 원은 타인에게 이로운 것이다. 욕심이 생길 때,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본분에서 비껴 가게 된다. 우리 그릇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제해야 하고, 자제는 자기 관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속물이 된다.

인정사정 불이지 마라. 인정이 濃厚해지면 道心이 성글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인정사정 두지 말랬다고, 스님네 중에는 참 필요이상 냉정한 사람이 많은데, 자비심까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인정은 사적인 것이고 자비심은 보리심이다. 자비심에서 지혜가 짹튼다.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른 것이고, 깨달음도 행이 없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웃까지 깨달게 하겠다, 이런 行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이런 것이 수행의 길이다.

- 마음은 얼마든지 움직일 줄 알면서 그 마음에다 행을 따라 붙이는 일은 언제나 실패다. 이 말을 벨으면 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벨고, 하나 더 먹으면 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 마음과 행이 늘 어긋나기에 갈등으로 부글거리는 가슴은 늘 편편치가 않다. 생각은 늘 도인이되, 번번이 행 앞에서 고구라지는 우리들. 어째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까, 의심의 시간도 갖지 않은 채, 하루는 가고 아까운 봄날은 간다.

“운문사 책실이 참 자비심이 있더군. 방이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냉골이라. 나는 따뜻한 곳에서 잤지만은. 보일러 고장인 줄은 몰라도 - 사실 그랬다 - 증생의 즐기에 맞게 선택의 배려를 해 줬구나, 그랬지. 세상의 모든 일을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생각 깊이 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법문이다. 그것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늘 성성하게 깨어 있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 깨어 있으라, 있으라. 법정스님께서는 이 말을 시작과 끝으로 法門을 마치셨다.

그대로 다 실천은 못하더라도, 선지식을 만나 이런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될 때마다 잊고 살던 마음 챙기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올 때처럼, 표표히 사라지는 스님의 뒷모습은 훌훌 털어버린 자의 자유로움과 이미 생의 기미를 알아차린 자의 허허로움, 바람을 닦은 그 가벼움이 서려 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자, 그리 많지 않다. 얼굴 표정으로는 많은 것을 감출 수 있어도 뒷모습까지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에, 뒷모습이 아름답기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저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 뒷모습을 보고 ‘아, 삶이란 뒷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든 몇몇 사람들 중의 한 사람, 법정스님!

스님을 배웅하며 무지중에 뛰어나온 말, ‘소욕지족’, 닦고 싶은 그 뒷모습. ◎



○○ 바로 보기 *

혜가 / 대교파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거북이의 과제

효중 / 사미니파

꺄 · 깍 · 깨 · 깍 · 깨 · 깍

초침을 보며 앉아 있던, 처음입니다.

초시계는 체육 시간 100m 달리기 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정랑에 앉아서 초침을 보고 있게 될 줄이야.

거북이가 등무하잘 정도로 느릿~한 저를 보시고도

그저 그냥 웃음으로 넘겨주신 어른스님과 사형님이 떠오릅니다.

재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부분이며

앞으로 제게 주어진 과제이자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켜 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4년 뒤 저는 거북이의 등껍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매력〉

가끔은 전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바쁜 일과!

그 가운데서도 얼마 전부터 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 새벽 예불 전의 상쾌한(박하사탕 같은) 공기와 고요한 임정시간.

- 차수하고 시선 내리고 거의 뛰듯 달리듯 걸어가다 문득 올려다 본 밤하늘의 별★별★별

- 얼음 동동 뜯어 이목 소 물에 얹치하기

- 가슴에 담기도 벅찬 주위 풍광.

(실감이 나지 않아 마치 스크린이나 액자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그리고 무섭고 엄한 듯 하면서도

진실로 아껴주고 걱정해 줌이 느껴지는 윗반 스님들의 격려의 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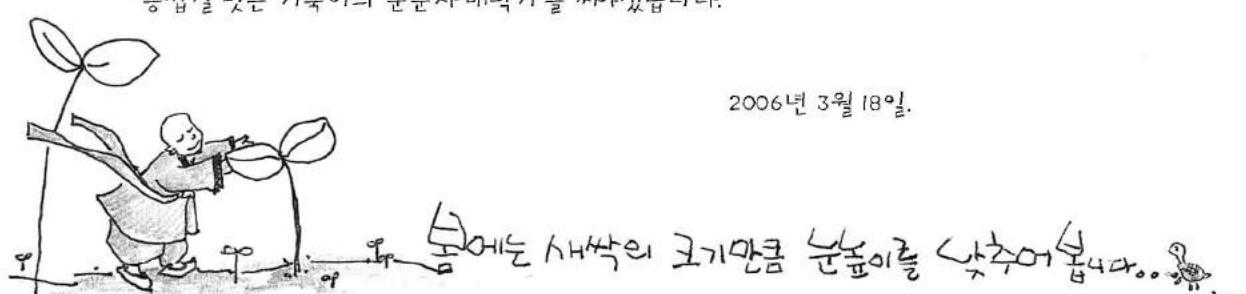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끔 제게 멋쩍은 미소를 짓게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무수히 많은 운문사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졸업할 즈음엔

'등껍질 벗은 거북이의 운문사 매력기'를 써야겠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 티베트를 다녀와서 -

선주 / 사집과

노란 빛깔의 꽃들로 뒤덮인, 끝없이 이어지는 고산지대의 푸른 초원은 경이로웠다.

봄이었다. 척박한 땅에도 봄은 어김이 없다. 나는 출가 전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자유를 찾아 실크로드를 여행 중이었다. 잠깐 길을 벗어나 걷고 있었다. 힘들게 도착한 랑무쓰는 중국 감숙성에 위치한 티베트 문화권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 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운이 좋으면 천장(天葬)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천장에 대해서는 티베트의 장례풍습으로 시신을 새에게 먹이로 준다는 정도만 들어 알 뿐이었다. 누군가의 죽음과 만난다는 것이 운이 좋은 것이라니, 이상한 기분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운이 좋았다.

마을에서 걸어 사십여 분 떨어진 산언덕에 자리한 천장 터에는 돌무더기 위에 매달린 오색의 깃발이 무심하게 바람에 훌날리고 있었다. 천장은 티베트인들에게 있어 신성한 장례의식으로 일반 관광객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저마다 다른 색의 눈동자를 가진 여행객들이 와 있었다. 오직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말이다. 박완서氏의 말처럼 “관광행위 자체가 이 순결한 완전 순환의 땅에 모독”이었다.

기다렸던 장례행렬은 조출했다. 서너 명의 라마 승려와 티베트인, 그리고 묵직해 보이는 자루를 매단 한 마리의 말이 전부였다.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지만, 어린 시절 보았던 화려한 꽃상여는 이곳에 오히려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말에서 내린 자루에서는 알몸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죽은 지 며칠 되었을 시신은 성별조차 구별하기 힘들었다. 그저 시신일 따름이었다.

라마승이 한편에서 그들의 주식인 짬파(zzampa)를 태웠다. 그 연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날아가자,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커다란 독수리가 시신 주위를 빙 돌아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때 누군가 날이 넓은 칼을 휘두르며 몰려드는 독수리떼와 구경꾼들을 내쫓고 있었다. 그는 천장 전문 장의사로 ‘조자바’라고 부른다. 조자바는 묵묵히 시신의 늑골 아래 부분을 일직선으로 가로로 벤 다음, 세로로 잘라 내장을 꺼내 시신 언저리에 뿌렸다. 독수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먹이를 차지했다. 구경꾼들 역시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조자바가 연신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지했으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다며 눈살을 찌푸리며 왔던 길을 돌아갔다. 나는 못 박힌 듯 서서 그저 명하니 바라만 보았다. 태어나 처음 보는 시신은 영혼이 떠난 고깃덩이일 뿐이었다. ‘잔인하다’는 표현은 여기에 걸맞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탐욕과 분노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있지 않은가.

오롯이 뼈만 남게 되자 조자비는 그 뼈를 잘게 부수어 독수리들이 남김없이 먹을 수 있게 했다. ‘못된 사람의 시신은 독수리도 먹지 않는다.’고 믿는 티베트인들이기에 내세에 더 나은 生으로 윤회할 수 있도록, 독수리들이 뼈까지도 다 먹어주기를 바래서 시신을 해체한다고 한다. 라마승이 다시 짬파를 태워 연기가 피어오르자 독수리들은 하나 둘 미지의 세상을 향해 날아갔다. 육신을 버린 영혼도 새가 되어 자유로워졌기를 나는 기도했다.

티베트는 해발 3천 미터가 넘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다 보니 매장풍습이 발달하지 않았다. 또한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화장도 할 수 없기에, 조장(鳥葬)이 불교와 함께 인도 승려에게 전해진 이후부터 자연스레 그들의 문화인, 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삶에 불교가 녹아든 티베트인에게 세상을 떠나며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시라는 아름다운 마음과 독수리가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 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래서 닭이나 새를 해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고 한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 평야에 티베트의 자유로운 영혼들을 실은 독수리 400여 마리가 벅이를 찾아 날아든다고 한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땅, 티베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먼 곳인데 새들은 이렇게 해마다 온다. 문명의 이기가 아닌 자연의 새를 통해 하늘을 날아 여행하고자 한 티베트인들은 현명했다.

인간은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으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없다. 그러나 인생의 무상함을 사무치게 깨달아 삶의 바른 습관이 익어지는 수행이 더해진다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또 어김없이 찾아 온 봄.

봄날의 햇살은 겨우내 얼어 있던 대지를 녹이고도 남음이 있어서 내 마음까지 녹인다. 늘 새로운 것을 꿈꾸며 떠났던 여행. 그것은 내가 이곳으로 올 수 있게끔 한 구도기이다. 그 길 위에서 만났던 술한 인연들과 지금 이곳의 귀중한 인연들에게 늘 감사해 한다. ●

휴식의 기술

편집부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그 생명력은 늘 우리를 경이롭게 한다. 차갑게 얼었던 땅과 견고한 나뭇가지 사이로 꽃봉오리와 새싹들이 뿜어내는 입김으로 온 도량에 가득하다.

산과 들을 가득 메우는 그들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한겨울의 추위와 가뭄 속에서도 자연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살펴보면, 내적인 리듬에 초점을 맞춘 휴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의 일상은 매일 새벽 3시부터 시작이다. 꽉 짜여 계속되는 일정과 대중 생활에서 오는 긴장감 등으로 우리는 은근히 휴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이 어떤 것인지 몰라 수행에 힘이 되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늘 피곤에 시달린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자연의 휴식을 통해 우리는 적절하고도 당당한, 수행자다운 휴식을 배워 정진의 힘을 얻어 보자.

휴식이란 첫째, 몸의 조화로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 끝에 극단적인 고행으로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몸을 거문고 줄[絃]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듯이 …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하시곤 하셨는데, 『중야함경』을 살펴보면 아나울에게 설법을 맡기신 후 ‘나는 지금 허리가 아파 조금 쉬어야겠다.’고 말씀하신 후 자리에 누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부처님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알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그 방법으로 늙는 것 등의 휴식을 인정하셨다.

둘째, 휴식은 中止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히 방에 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한가하면서도 산만하지 않은, 이완된 시간을 말한다. 그저 강둑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몸의 행위를 그치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한시도 쉬지 못하는 마음의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런 마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휴식을 원했던 이유가 육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마음의 산란함, 번뇌, 망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일부러 애써서 얻

고자 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자연히 마음은 쉬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휴식은 게으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리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만큼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셨다. 心身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망중한(忙中閑)의 여유로 피로를 해소하려다가, 그 해소에 탐닉하여 오히려 더한 침체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종종 휴식은 게으름과 동일시된다.

『보리도차제』에서는 게으름의 세 가지 종류를 밝힘으로써 휴식과 게으름의 구분을 명확히 해 준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뒤로 미루는 것, 둘째는 때 아닌 때 먹는다거나, 잡담, 세속적인 일, 不善業에 해당하는 일 등의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 셋째로 나 같은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찌 일체 중생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스스로 자신감 없어 하는 것은 모두 게으름이라는 것이다.

비록 부처님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긴 하셨지만, 그럴 때에도 선정에 드시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세우고 언제나 일어날 생각을 가지셨고, 안온하게 된 후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누워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는 참된 휴식이 아닌 다만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쉬지 않고 움직이되, 머리속에 항상 내가 곧 부처라는信心이 없다면 이것 또한 게으름이 되고 만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긴장감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정신적 해이함을 휴식으로 오인하여, 지대방에 모여 앉아 法답지 못한 쓸데없는 말들로 목소리를 높이며 파악대소하는 것이 활발한 젊은 출가자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피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채 등을 바닥에 붙이고 눕는 것을 예사로 하지는 않는가?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와 한계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쉰다 해도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휴식의 첫걸음인 것이다.

결국 진정한 휴식이란, 외부의 잡다한 사물이나 사건에 몰두한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스스로의 내면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내면에 깨어 있는 힘, 즉 定力を 키워서 行·住·坐·臥 어느 때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견디는 힘이 생기고 육체적 피로도 감소하게 된다. 즉 수행이 깊어지고 선정의 힘이 깊어질수록 따로 휴식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옛 조사들의 삶에서 별다른 휴식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휴식의 기술-매순간 惺惺하게 깨어 있는-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좌선이나 경행할 때, 經을 독송할 때, 밭을 매면서도 항상 '깨어 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휴식이다.

식곤증이 또 다시 우리의 의지를 나쁜하게 하는 계절이다.

이런 때일수록 '성성하게 깨어 있음'을 통해 자신을 면밀히 觀해야 할 것이다. ☺



운·문·소·식



• 2월 11일 ~ 14일

주지스님을 비롯한 12분의 강사스님들께서 4박 5일간 대만불교 견학차 다녀오셨습니다.

• 2월 15일 ~ 3월 11일

제30기 행자교육원에 주지스님께서 갈마사로, 습의사로 지은연구생 스님 이 다녀오셨습니다.

• 2월 27일

정국스님(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외 4명의 스님들께 학장스님의 제4회 법계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 2월 28일

봄철 개학공사 및 신입생 방부(효탄 중강스님과 사미니파 54명)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2월 28일 ~ 3월 2일

대중스님들의 무장무예를 벌이하는 신중기도가 3일간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회향일에는 화재예방 소급 문기가 있었습니다.

• 3월 1일

황우석 교수의 연구제계를 위한 출발집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주지스님과 어른스님, 화엄반·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6일

『논어』를 시작으로 염불·피아노·서예·일어·영어·꽃꽂이·사군자·요가·컴퓨터 등 각종 외전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7일

치문반 스님들의 사리암 침배가 있었습니다.

• 3월 15일 ~ 22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26회 '구족계 수계산림'에 주지스님께선 찰증파 강의를 학감스님은 갈마사로 참석하셨습니다.

• 3월 17일

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0일

연례행사인 대교과 스님들의 탁발순례가 부산·경주·대구·동곡·연양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탁발순례는 운문사 인근지역의 학교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는 학생들의 급식비와 혁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총 탁발금액은 10,437,640원으로 동곡초등학교에 113만원, 방지초등학교에 200만원, 금천초등학교에 330만원, 금천초중고등학교에 200만원과 공납금으로 39만1천원, 방글라데시 일보스님 강원불사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여러 등지의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3월 21일

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2일 ~ 24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14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사교과 스님 50명이 수제하였습니다.

• 3월 25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불교박람회'에 치문반 스님들을 제외한 대중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7일

감자심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3월 28일

소방훈련과 교육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3월 30일 ~ 31일

각 부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 3월 31일

천연기념물 제 180호 처진 소나무에 막걸리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 4월 1일 ~ 3일

동국대학교 김성철 교수님의 '중론'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교수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4월 5일

대중이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7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0일

초파일 연등만들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4월 17일

30일간 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지홍스님 · 인천 극락암 주지스님 · 수덕사 극락암 주지스님 · 삼신사 주지스님
· 정동주 불자님 · 진무현 불자님 · 최외문 불자님 · 하청호 불자님 · 조용범 불자님
· 이기태 불자님 · 최희영 불자님 · 이점석 불자님 · 최용호 불자님 · 최상희 불자님
· 이월례 불자님 · 오승혜 불자님 · 이종상 교수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2-8834 (FAX 겸용)